

INVITATION
TO THE
ARTS
MAY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5 vol.293

© Korean National Ballet



Cover Story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세계의 공연장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부산

축제속으로 고고

2016 수원연극축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TCHAIKOVSKY

SYMPHON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V



지휘 필립 만
Philip Mann

클라리넷 임상우

Program

- 라벨 | '어미 거위' 모음곡
- M. Ravel | "Ma mère l'oye" Suite

-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 W.A.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5번 미단조 작품 64
- P.I. 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2016. 5. 2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 (홍부팀), 607-3145 (공연운영팀), 607-3151 (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블서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할인(전화예매시)
 50% 할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할인 ▶ 정기회원(인터뷰에 가능) | 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단체(10명이상)할인 10%~30%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Dvořák

예술감독 김원명



Violin 김준영



지휘 이효상



작곡 박규동

PROGRAM

박규동 교향적 그림 <오룩도>

Mozart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Dvorak Symphony No.5 in F Major, Op.76

2016. 5.12 | 목 |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관람연령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입장료 | 1만원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 본 공연은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AYAKO

A



MAYUKO

T



O



E



F
16



Silver train

NORIHIRO TSURU



U



20

Acoustic Café 내한공연

어쿠스틱카페

2016. 5. 16 MON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공연장

5월 가정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동춘서커스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 1시, 5시 (2회 공연)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
예매 749-7651, 인터파크, 예스24

지정좌석 VIP석 3만원 R석(1층) 2만원 A석(2층) 1만원

관람제한 전체 관람 인터넷예매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할인적용 누림회원·초·중·고·다자녀, 단체20인 이상(30%)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문화바우처(50%)



특별기획공연

추억과 함께하는....

조영남의 봄소풍

2016. 5. 20. Fri 19:30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티켓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누림회원 20% 단체 20% 국가유공자 장애인 30% 할인



특별출연 위일정



방송교향악단 창단 연주회

노자와 베토벤

LAO-ZI & BEETHOVEN



오충근 예술감독

최진석 특별출연

현시대의 답답함을 인문학으로 속 시원히 풀어주는
노자 철학자 **최진석**교수와 세계로 향하는 부산문화의 아이콘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교수의 운명적 만남!

2016. 5. 30 |월|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KNN PHILHARMONIC ORCHESTRA |특별후원| 문화사랑 K프렌즈 |후원| KBS1 박선일석문화재단 KNN 문화재단

|문의| KNN 방송교향악단 051-850-9568 |입장권| 입장권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초대권 신청| KNN홈페이지 www.knn.co.kr

CONTENTS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 10 **5월 공연 캘린더**
- 12 **세계의 공연장**
오늘로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부산
- 16 **축제속으로 고고**
2016 수원연극축제
- 18 **그곳에 가면**
고려제강 '키스라이어센터'
- 20 **테마가 있는 여행**
복사꽃 피는 청도 봄 여행

BOARDS INSIDE



- 28 **프리뷰**
- 34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2 **새로 나온 음반**
- 53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5월호 통권 293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4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돈키호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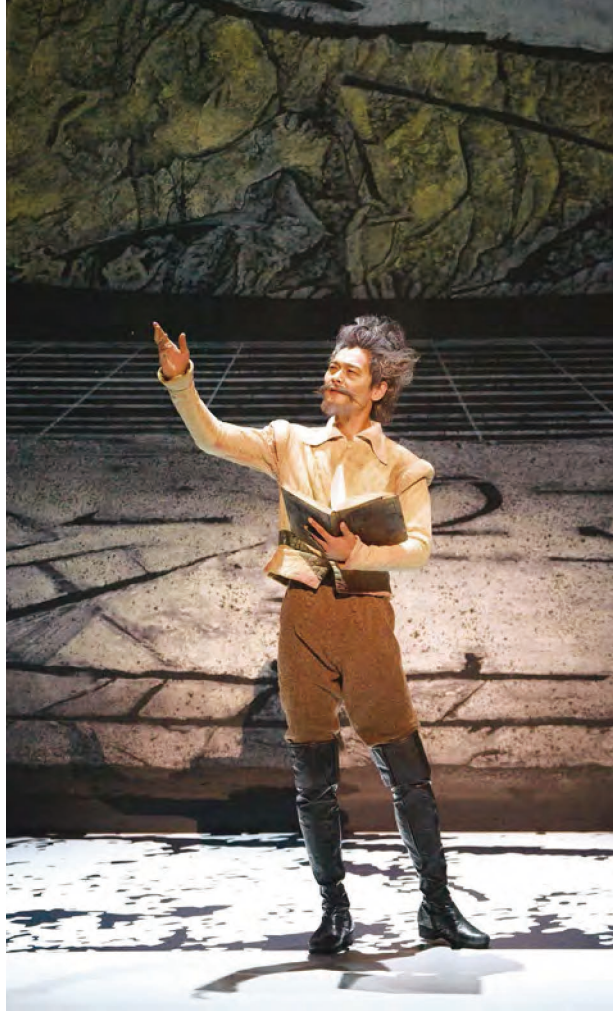
6월 6일 월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 5만원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가 부산을 찾는다. 6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공연으로 스페인 정취가 가득한 발레 '돈키호테'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 1997년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발레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된 후 국립발레단의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발레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해설이 있는 발레'는 2010년부터는 '전막 해설발레'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관객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무대에 오른 '돈키호테'는 역대 시리즈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동명소설에 등장하는 결혼소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

발레 '돈키호테'는 프랑스 태생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가 러시아 황실발레단의 마스터로 있을 때 안무한 전 3막의 발레작품으로, 1869년 모스크바에서 러



메르세데스와 투우사 © Korean National Ballet



돈키호테 © Korean National Ballet

시아 황실발레단에 의해 초연됐다. 프티파는 그가 일찍이 에스파냐를 여행하면서 익힌 그 고장의 춤을 이 작품에서 재현했으며, 루드비히 민쿠스의 밝은 음악은 에스파냐의 춤을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다.

발레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원작에 나오는 광기와 몽상으로 가득찬 주인공 대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세속적인 에스파냐 사람들이 등장하고, 자칭 기사인 돈키호테와 그의 충복 산초 판자는 여인숙 주인의 말괄량이 딸 키트리와 가난한 이발사 바질과의 사랑을 이어주는 감초 역할로 등장한다. 공연 해설은 극중 인물인 '가마쉬'가 직접 맡는다. 가마쉬는 결혼식 당일 이발사 바질에게 신부인 키트리를 빼앗긴 돈 많은 귀족으로, 스토리 전개 뿐 아니라 삼각관계의 라이벌이자 사랑에 실패한 등장인물로 질투, 분노, 해탈의 감정과 모험을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막이 오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장을 배경

으로 투우사와 여인들의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선술집 주인의 딸 키트리가 등장한다. 아름다운 키트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바로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키트리는 바질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로 렌조는 돈 많은 귀족 가마쉬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한다. 키트리는 바질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마쉬와 결혼식을 올릴 위기에 처한다. 이때 마을을 지나던 돈키호테와 그의 조수 산초 판자는 젊은 커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돕기로 하고 결국 키트리와 바질은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경쾌한 음악과 코믹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정취가 가득 담긴 붉은색의 화려한 의상과 어우러지는 투우사의 춤, 플라멩고 춤을 비롯해 흥겨운 탬버린과 캐스터네츠를 이용한 현란한 춤 등 다양

한 볼거리가 가득해 발레 초보자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특히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장면은 아다지오, 남녀 솔로 바리에이션 등으로 이뤄진 '그랑 파드되(2인무)'로, 수많은 발레 작품의 그랑 파드되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성 무용수의 32바퀴 연속 회전과 남성 무용수의 화려한 점프 등 고난이도 기교의 절정으로,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발레 '돈키호테'로 부산을 찾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해온 한국발레의 대명사 강수진 예술감독을 수장으로 맞아 국립발레단을 아시아 최고의 발레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발레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05

CULTURAL SCHEDULE

2016 MAY

SUN

MON

TUE

1

중 심쿵양상블 Pit A Pat 'What Else? 더 콘서트, 그 첫번째 이야기' 18:30
균일 5천원/배아름(010-4817-9645)

2

중 손은혜 귀국 클라리넷 리사이틀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3

8

대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한국 극단 하땅세 '파우스트' 17: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수전노' 17: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9

대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한국 극단 하땅세 '파우스트' 20: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조지아 코테 말자니시빌리 극단&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극단 '광인일기' 19:30

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수전노' 20:00

10

대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한국 극단 하땅세 '파우스트' 20: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조지아 코테 말자니시빌리 극단&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극단 '광인일기' 19:30

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사랑에 대하여' 20:00

15

대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_ 프랑스 극단 LMN '루이 블라스' 17: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

16

대 2016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19:30
7만원·6만원·5만원·4만원·3만원
(주)실버트레인(02-338-3513)

중 제27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반여고 '유랑극단 아리랑'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7

대 부산음악사랑회 제10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부산음악사랑회 (011-835-8731)

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경남고 '관광지대'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2

중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 연주회 18:00 초대/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010-4842-6688)

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개성고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3

중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1회 정기연주회 '정은정, 신정은 듀오 리사이틀'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3165-1219)

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부산진고 '숙박업소 425'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4

중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1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3165-1219)

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만덕고 '불타는 별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9

중 피아니스트 김현정 초청 독주회 '영화 속 소풍, 소풍과 사랑에 빠지다' 17:00
균일 2만원/부산문화(633-8990)

30

대 KNN방송교향악단 창단연주회 '노자와 베토벤'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KNN방송교향악단(850-9568)

31

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9회 음악정기연주회 19:0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푸르른 날의 오페라, 발레, 뮤지컬'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01, 3148)

소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Dream Performance 2016' 19:00
1만5천원·7천원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627-7992)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관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4	5	6	7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조지아 코테 말자니시빌리 극단&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극단 '광인일기' 19:3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사랑에 대하여' 20:00</p>	<p>아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살거스 '영혼들의 축제' 19:3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_ 러시아 로만 비크류 극단 '하녀들' 19:3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수전노' 17:00</p>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_ 러시아 로만 비크류 극단 '하녀들' 14:00, 20: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루이 블라스' 17: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_ 2016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표풍'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일본 극단 치텐 '벚꽃동산' 15:00</p>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조지아 코테 말자니시빌리 극단&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극단 '광인일기' 19:3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프랑스 극단 LMN '사랑에 대하여' 20:00</p>	<p>아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 살거스 '영혼들의 축제' 19:3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_ 러시아 로만 비크류 극단 '하녀들'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일본 극단 치텐 '벚꽃동산' 20:00</p>	<p>대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_ 프랑스 극단 LMN '루이 블라스' 17:00 2만5천원·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02-8003)</p> <p>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_ 2016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표풍' 19:30 균일 1만 5천원</p> <p>소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_ 일본 극단 치텐 '벚꽃동산' 15:00</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4회 정기 연주회_5월 가정의달 기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우리음악 이야기'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학산여고 '개천의 용간지'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5회 정기 연주회_이건문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 'Universal Busan' 19:30 균일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08, 3146)</p> <p>중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41회 정기연주회 '전숙영 피아노독주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4011-0560)</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부산정보고 '수상한 흥신소'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V'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중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41회 정기연주회 '듀오의 날'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4011-0560)</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문현여고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_ 2016 가요 합창음악회 '추억 만들기' 17:00 1만원·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p> <p>중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 예선 09:0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화명고 '헤더웨이 집의 유평'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피아니스트 김민주 귀국 독주회 19:30 2만원·1만원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010-9885-9237)</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해강고 '천국의 아이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1180회 MBC목요일음악회 '한스쇼콰이어 통통콘서트' 19:30 1만원·5천원/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한국과학영재고 '꿈꾸는 별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8회 정기 연주회 20:00 초대 한울림합창단(010-6252-0019)</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부산중앙고 '칼이&수마'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2016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제'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바리톤 유웅준 귀국 독창회 19:00 균일 2만원/유웅준(010-2138-1104)</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민합창단 애창명곡과 함께하는 토요일'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p>중 피아니스트 김민주 귀국 독주회 19:30 2만원·1만원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010-9885-9237)</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해강고 '천국의 아이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1180회 MBC목요일음악회 '한스쇼콰이어 통통콘서트' 19:30 1만원·5천원/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한국과학영재고 '꿈꾸는 별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8회 정기 연주회 20:00 초대 한울림합창단(010-6252-0019)</p> <p>소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_ 부산중앙고 '칼이&수마'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2016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제'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바리톤 유웅준 귀국 독창회 19:00 균일 2만원/유웅준(010-2138-1104)</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민합창단 애창명곡과 함께하는 토요일'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전시실

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공모전 - **대·중전시실**
4월 30일(토)~5월 2일(월)
문의:이준구 010-8463-2300
*시상식 4월 30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제13회 부산서예전람회 초대작가전 및 공모전 - **대·중전시실**
5월 5일(목)~5월 7일(토)
문의: 부산서예전람회 사무국 759-8858
*시상식 5월 7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부경서도 초대작가전 - **중전시실**
5월 9일(월)~5월 12일(목)
문의:조상래 010-8501-8181

제22회 대한민국 전서예대전 - **대전실**
5월 11일(수)~5월 14일(토)
문의:최연성 010-6229-3698
*시상식 5월 14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부산디카사랑 제11회 사진전시회 - **중전시실**
5월 13일(금)~5월 15일(일)
문의:장영주 010-9297-2795

제20회 Asia 미술대전 - **대전실**
5월 16일(월)~5월 19일(목)
문의:윤호철 010-3592-6990
*5월 16일 오후 2:00 전시 오픈

제36회 전국서도민전 - **대·중전시실**
5월 21일(토)~5월 25일(화)
문의:회장 정명환 441-7081
*시상식 5월 21일(토) 오후 3:00 국제회의장
*5월 25일(화) 오후 12:00까지 전시 진행

부산회화제 - **대·중전시실**
5월 30일(월)~6월 4일(토)
문의:김명수 010-4138-4847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부산

글·사진 이 상 훈 드림원정대 대표



많은 여행가들이 도시보다는 자연의 풍광을 선호한다지만 나의 경우는 반대이다. 언제나 도시가 궁금하다. 오히려 대도시이면 더욱 반갑다. 도시 구성원을 위한 인공적 아메니티의 제각기 모습들이 나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OPERAHUSET OSLO

도시 여행을 하는 필자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면 공식처럼 그 도시의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는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우는 최소한 이틀을 머무른다. 두 공연장에서 각기 공연과 연주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방문 이전에 공연장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은 기본이다.

오슬로(Oslo)를 찾은 건 벌써 5년 전 일이다. 노르웨이 베르겐(Bergen)에서 피요르드(Fjord)를 여행하던 중 예정을 앞당겨 오슬로에 들어왔다. 2011년 7월 테러사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바로 그 해이다. 그리고 도착 당일 어김없이 오슬로의 오페라하우스를 찾았다. 바로 이번 호에 이야기로 다룰 오슬로 오페라하우스(Operahuset Oslo)이다.

북유럽 노르웨이의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웬지 거리감이 있는 도시

의 낮은 건축물 같지만 공연에 관심이 있는 부산 시민이라면 익숙할 지도 모르겠다. 바로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에 들어설 부산시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노르웨이의 건축디자인 그룹 스노헤타(Snohetta·스노헤타는 노르웨이에 위치한 고산 이름이기도 하다)의 당선작과 컨셉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판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겠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열외로 두자. 1999년 건립이 결정되었고 2008년 개관, 오슬로를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 완성될 대규모 항만 재개발 계획의 메인 프로젝트로 추진된 점도 우리 부산시의 상황과 일치된다.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자. 이 오페라하우스의 부지가 오슬로 중앙역(Oslo Sentralstasjon)을 후면에 두고 구 도심에 위치



- ① ②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내부
- ③ 브리튼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 ④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객석

한 점, 그리고 오슬로 항, 더 정확히는 오슬로 내부 피요르드(Inner Oslofjord)와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북항과 매우 흡사하다. 심지어 영도와 같은 위치와 거리에 몇 개의 섬과 곳(Cape)이 있다는 점까지도 말이다.

사진에서 보듯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스듬한 평면으로 조성되어, 계단 없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옥상 정원까지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경사면이다. 그리고 중앙 로비에서 확 트인 크고 높은 층고의 유리창문을 통해 오슬로 항과 바다가 바라보인다는 점이다. 오페라하우스가 공연을 즐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도시 구성원 누구나 공연 관람 유무와 관계 없이 워터 프론트의 중심 랜드마크로서 접근 가능하도록 한 점은 기존 오페라하우스와는 다른 획기적인 발상이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가 단순히 오브제로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장의 기능을 넘어 도시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개념으로 확장했다. 그것도 바다와

만나는 항만의 통로로서 말이다.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해안가에 빙하가 떠있는 형태의 컨셉으로 건설되었다. 그렇기에 외벽은 웅장한 흰색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마감, 오슬로 피요르드의 꼭지점에 위치한 부지와 컨셉이 절묘하게 연결된다. 그렇기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건축물은 설계 컨셉 그대로 진짜 빙하의 모습과 유사하다. 건축물 매스 자체가 여러 개의 사선(diagonal line)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심지어 무대부분을 덮고 있는 무대타워마저도 빙하의 한 조각 파편처럼 느껴진다. 만약 눈 내린 한겨울 이 오페라하우스를 만났다면 오슬로 방문 직전 찾았던 송네 피요르드 겨울 사진이랑 비슷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내부공간조차도 전형적인 오페라하우스의 평면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층이 나뉘는 계단도 일부는 완만한 경사면으로 뒤서 내외부 컨셉을 일치하였으며 천장 구조물과 계단을 지지하는 기둥 구조물 역시 어느 것 하나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다. 심지어 내부의 벽면은 얼음 결정의 격자모양으로 설계되어서 눈길을 끈다. 내부공간에서



3



2



4

공연장을 감싸는 매스만이 코펜하겐 리브 형태로 요철문양의 나무로 뒤덮여서 차가운 느낌을 중화시킨다. 실제 내부공간 대부분이 비대칭의 평면구조를 띠고 있다. 오로지 오페라하우스 내부 무대와 객석 평면만이 좌우대칭 구조이다.

오늘로 오페라하우스에는 1957년 설립된 노르웨이 국립오페라단과 발레단이 상주해 있으며, 연중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와 발레 등 다양한 공연이 개최된다. 입장권은 제일 싼 좌석과 비싼 좌석이 100~645 NOK(크로네), 우리 환율로 대략 1만3천원에서 9만원 정도로 비싼 북유럽 노르웨이의 물가를 감안하면 부담없는 가격이다.

2010/2011 시즌이 끝나가는 6월 어느 날 내가 만난 작품은 영국 현대 오페라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의 '피터 그라임스(Peter Grimes)'였다. 19세기 중반 가상의 어촌마을 보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작품명과 동명인 중년의 어부 이야기이다. 작곡가에게 비평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작품임과 동시에 2차 대전 이후 작곡된 오페라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 영어로 부르는 몇 안되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번스타인의 '캔디드'와 같이 살짝 뮤지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물론 우연의 일치였

겠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굳이 이야기거리를 맞추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와 어울릴만한 작품이다.

몇 년 뒤면 부산시도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진다. 베르디의 두 작품 '시몬 보카네그라', '포스카라가의 두 사람',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푸치니의 '나비부인' 등과 같이 바다를 소재로 다룬 오페라로 개관작들을 준비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 바다를 소재로 한 우리말의 창작 오페라가 무대에 올라 빛을 발하는 상상도 해본다.

언젠가 남북이 하나되면 부산은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부지가 북항 재개발지역인 것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계획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극동의 관문(Far East)이 될 이 중요한 부지에 문화적 자부심이 가득찬 도시의 랜드마크가 위치한다면 부산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2016년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인구 300만 이상을 가진 도시에서 오페라하우스가 없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



2016

수원 연극 축제

5.5 목 / 5.8 일

수원화성 행궁광장, 수원SK아트리움
KBS수원아트홀 등 수원시 일원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수원연극축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제이다. 지난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국제적인 연극축제로, 2014년까지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로 불리다 지난해부터 '수원연극축제'로 열리고 있다. '수원연극축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에 연이어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어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2016 수원연극축제'는 5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더욱 풍성하면서도 화려한 무대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2016 수원연극축제' 개막작은 유럽의 화려한 공중퍼포먼스와 아크로바틱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스페인 극단 '푸하(Grupo Pujá)'의 '카오스모스', 수원화성 행궁광장의 약 40m 상공에서 펼쳐지는 공중서커스와 연극, 무용,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폐막작으로는 연극과 서커스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프랑스 극단 '퀴담'이 동화 속 날개 달린 말을 빛으로 표현한 '용감한 말'과 도심 속 하늘, 거대한 오브제 위에서 펼쳐지는 공중 판타지 퍼포먼스인 한국 극단 '프로젝트 날다'의 '빛, 날다-새로운 여정'이 장식한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작으로 선정된 한국 극단 '예술꽃 화(花, 火)랑'과 프랑스 극단 '까르나비에(Cie KARNAVIRES)'의 공동창작극 '길-Passage'를 만날 수 있다. '길-Passage'는 '불꽃'이라는 공통의 근원어를 통해 한국의 전통연희문화를 재해석하고 유럽의 축제문화에 녹아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킨 불꽃 거리극이다. 이밖에 헝가리의 1인 인형극 아티스트 벤스 사르카디가 선보이는 '부다페스트 마리오네트'와 스페인 극단 '엘흠'의

인형극 '스크린맨', 이탈리아의 아크로바틱 단체 '이벤티 버티 컬리'가 2차원 애니메이션 영상과 3차원의 곡예사가 만난 시각적인 코미디극 '원티드'를 선보인다.

국내 작품으로는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의 민속예술을 전공한 예인들이 구성된 '연희집단 The 광대'의 거리극 '황금거지'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인 마당극 공연단체인 (사)마당극패 우금치의 3대가 보는 가족 마당극 '쪽빛 황혼', 야외극 공연단체인 '공작소 365'가 피터팬의 이야기를 음악과 무용, 서커스극으로 구성한 'Tight Wire-Pan Peter', 연극계의 거장 오태석이 이끄는 극단 목화의 '백마강 달밤에', 세익스피어의 '리어왕'을 화성행궁을 무대로 재탄생시킨 극단 노들의 '리어' 등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연극제 기간에는 수도권 12개 대학교 연극관련 학과 학생들과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연극페스티벌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회극낭독, 수원시의 지역연극단체가 참여하는 수원생활연극축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수원연극축제 20주년 기획전, 수원천 공공예술 프로젝트, 화성행궁 상설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문의 / 수원연극축제 031-290-3582, www.suwontf.or.kr

**2016 안산국제
거리극축제**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

5.5 목 / **5.8** 일

안산문화광장 일원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을 대표하는 봄의 축제 '2016 부산국제연극제'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2016 수원연극축제' 외에도 5월, 안산과 의정부에서는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5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올해 12회를 맞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지난해 세계축제협회(FFA) 피너클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야외축제로 자리매김했다. 5월 5일부터 나흘간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올해 총 13개국(국내 32개, 해외 18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중 퍼포먼스극인 프랑스 'Compagnie Gratte ciel'의 '천사의 광장(Place des Anges)'과 스페인 'Grupo Pujá'의 '카오스모스(K@OSMOS)'가 각각 축제의 개·폐막을 장식하며, 이 밖에 전통 연희부터 현대 광대까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거리극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무국(031-481-0531, www.ansanfest.com).

**제15회 의정부
음악극축제**

Art &
Humanity

5.13 금 / **5.22** 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일원

지난 2002년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국내외 최신 음악극들을 선보이는 장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대표작들을 소개해왔다. 5월 13일부터 'Art & Humanity'라는 주제로 열흘간 펼쳐지는 '제15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제1차 세계대전 100주기를 기념해 인류 전쟁의 본질을 짚어낸 'The War(러시아)', 현대인의 내적 결핍과 치유를 다룬 'Missing(영국)', 공항에 표류하게 된 사람들을 소재로 한 '바람구두를 신은 두 남자(브라질)',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닭들의 꿈, 날다(한국)', 음악서커스 '양들의 회전목마(벨기에)',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_의정부 러브 스캔들(한국)', 가난한 이들의 이웃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뮤지컬 '빨래(한국)' 등 총 7개의 실내초청작 외에도 11개 야외 초청작품이 무료로 펼쳐진다. 문의는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031-828-5841~2, www.umtf.or.kr).



1

와이어가 만드는 건축의 새로운 풍경

고려제강 키스와이어센터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인 와이어(Wire), 당기는 힘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와이어가 최근 들어 새로운 건축 구조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와이어가 만드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재현한 건축물이 바로 지난 2013년 9월 완공된 '키스와이어센터(Kiswaire Center)'이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 철강산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고려제강은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대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유명 현수교의 와이어를 생산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건축가 조병수 씨가 설계한 '키스와이어센터'는 바로 이 현수교의 원리를 이용, 와이어가 주력상품인 고려제강의 기업 이미지를 건축물에 적용시켜 완공 당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키스와이어센터는 일반 건물에 있는 두꺼운 기둥이나 보 없이 28개의 가느다란 와이어만으로 836t의 콘크리트 지붕을 지탱하고 있다. 와이어의 장점과 특성을 건축 구조에 적용시켜 형태가 심플하면서도 빼어난 건축미를 보여주면서 건축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즐겨 찾고 있다.

'키스와이어센터'는 고려제강의 역사와 기업철학, 비전을 제시하는 1층 '키스와이어 홍보관'과 와이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2층 '와이어 뮤지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뮤지엄과 바깥 야외 공간을 이어주는, 와이어로 떠 있는 유연한 선의 나선형 경사는 구조



2



3

- ① 키스라이어센터 전경
- ② ③ ④ 키스라이어센터 홍보관 및 뮤지엄 내부
- ⑤ ⑥ 2014 부산비엔날레 특별전시관으로 사용된 고려제강 폐공장



4

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전시물로 감탄을 자아낸다. 경사로를 따라 외부로 나오면 콘크리트 속 자연을 품은 '수정원(Water Garden)'이 관람객을 맞고 와이어 뮤지엄을 투영하는 야외공연장이 자리하고 있다. '키스라이어센터'는 와이어가 만드는 건축의 새로운 풍경으로 지난 2014년 '부산다운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고려제강은 현재 공장 이전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인근 수영공장 부지에 3천여 평 규모의 부산 최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9월, 부산의 새로운 명소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키스라이어센터를 설계했던 조병수 씨가 설계를 맡은 이 곳은 특히 9월에 열리는 '2016 부산국제비엔날레' 주 전시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고려제강은 '2014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당시 폐공장이었던 이곳에서 아시아의 젊은 큐레이터들이 참여한 '특별전'을 펼쳐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키스라이어센터'는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예약자에 한해 하루 세 차례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5



6

복사꽃 피는 청도 봄 여행



일년 중 가장 날이 맑다는 '청명(淸明)'도 지나고 지천에 피어난 봄꽃들로 꽃향기 가득했던 지난 4월 11일, 복사꽃 피는 '맑은 도시(淸道)' 청도에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115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4월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분홍빛 복사꽃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는 청도는 때마침 여기저기 피기 시작한 복사꽃들로 봄날의 흥취가 가득하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는 '무릉도원' 청도로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로 아침부터 생기가 넘친다. 특히 이번 여행길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박성익, 최원갑 씨가 동행하면서 복사꽃 아래에서 펼쳐질 음악회에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1 와인터널 입구 2 와인터널 내부 3 청도읍성 4 청도석빙고

청도에서의 오전 일정은 청도의 이색 명소로 유명한 청도소싸움테마파크와 청도와인터널에서 시작했다. 청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청도소싸움’을 주제로 한 청도소싸움테마파크는 소싸움의 유래와 기술, 소와 관련된 유물 등이 전시되고 있어 인근 소싸움경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실제 기차가 다니던 터널이 와인저장고로 변신한 청도와인터널은 원래는 대한제국 말기에 완공된 남성현 터널로, 1905년 경부선 철도로 개통됐지만 1937년 직선노선인 남성현 상행선이 새롭게 개통되면서 사용 중지되었다가 지난 2006년 청도의 특산물인 감와인 저장창고로 이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터널의 총길이가 1km에 달해 와인 10만 병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곳은 와인저장고로서 뿐만 아니라 와인 시음 및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전시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평일 이른 시간이라 관람객이 없는 곳을 여유롭게 돌아보며 정기회원들은 함께온 가족, 지인들과 추억남기기에 열심이다.

청도와인터널을 떠나 도착한 곳은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청도읍성으로, 이곳은 청도 역사여행의 출발지이다. 청도읍성은 고려 말에 토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헌 기록상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선조 24),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전국 읍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 크게 고쳐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 개축과 소실을 반복해 오다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었다. 지난 2009년부터 복원사업이 펼쳐지면서 석빙고가 있는 동측구간에서 북측구간으로 북문인 공북루가 완공되었으며 성곽은 600m 정도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다. 특히 청도읍성에는 성 안팎으로 당시 지방 행정 시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청도석빙고(보물 제323호)이다.

석빙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와 만난 회원가족들은 해설사와 함께 본격적인 청도 역사여행을 시작했다. 숙종 39년(1713년)에 축조된 청도석빙고는 경주, 안동, 창녕, 현풍 등 현재 남아 있는 6개의 석빙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빙고이다. 특히 청도석빙고는 다른 지역의 석빙고와는 달리 봉토가 모두 유실되고 흙예만 남아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러나 골격이 모두 드러난 덕분에 석빙고 내부 구조를 한눈에



5 도주관 6 합창단 야외음악회 7 청도 복숭아시험장 8 딸기따기 체험

알아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청도석빙고를 찾고 있다. 청도석빙고를 시작으로 회원가족들은 청도읍성을 돌며, 조선시대 청도군의 객사로 쓰였던 도주관을 비롯해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중심건물이었던 동헌, 향교까지 청도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답사여행의 재미에 빠져 배고픈 줄도 몰랐던 회원가족들은 추여탕과 더불어 유명한 청도의 고디탕(다슬기탕)으로 뒤늦게 식사를 마친 후 회원가족들이 기다리던 청도복숭아시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직은 복사꽃이 활짝 피기 전인 4월 초인데도 테마여행을 떠나기 전날 비까지 내려 흑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 졸였던 회원가족들은 복숭아시험장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아주는 활짝 핀 복사꽃에 탄성을 질렀다.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청도복숭아시험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복숭아시험장으로, 10ha가 넘는 땅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 수많은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이면 수많은 복사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마치 무릉도원 같은 풍경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회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복숭아시험장 한가운데에 자리한 정자에서 모두가 기다리던 음악회가 펼쳐졌다. 흐드러지게 핀 복사꽃을 배경으로 정기회원 앞에 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박성의, 최원갑 씨는 아름다운 봄날에 어울리는 멋진 노래로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오후 남은 일정을 위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청도여행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딸기 따기 체험을 위해 신도정보화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신도정보화마을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유명한 곳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마을 운동의 변천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조성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된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돌아본 회원가족들은 마을주민의 안내로 직접 딸기따기에 나섰다. 달콤한 딸기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펼쳐진 딸기따기 체험을 마지막으로 청도여행을 마무리한 회원가족들은 활짝 핀 복사꽃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만개한 복사꽃만큼이나 아름다웠던 4월 청도 봄나들이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6월 10일 여름이 오는 길목 밀양, 원동

천년고찰 만어사와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영남루', 아랑의 정절을 기리는 아랑각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원동 순매원 도착, 매실따기 체험
- 11: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00 중식
- 13:00 천년고찰 삼랑진 만어사 답사
- 15:00 밀양 영남루, 아랑각, 표충비각 답사
- 17:00 부산 출발

7월 8일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친란한 문화유적과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천 여름여행.

-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김천 도착, 반곡포도마을 포도따기 체험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00 중식
- 13:00 직지사 탐방
- 14:00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탐방
- 15:30 방초정 탐방
- 16:00 부산 출발

05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Kelly Robert Edwin (금정구 금강로)	이유미(서구 구덕로)
강정숙(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정창석(수영구 광서로)
김미옥(금정구 중앙대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박경원(금정구 식물원로)	하현숙(사하구 대티로)
백미영(부산진구 서면문화로)	황숙희(연제구 거제대로)

● 기존 회원

김성미(부산진구 국악로)	윤경화(남구 수영로)
김수정(해운대 대천로)	이국향(수영구 남천동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장미정(금정구 금강로)
문봉자(사하구 낙동대로)	최은경(수영구 황령대로)
석송숙(남구 황령대로)	한길남(남구 황령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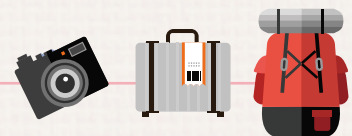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시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관람응모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johnlee1004>


추첨 후 개별통지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5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6. 6. 1 | 수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 오충근(지휘)


연 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 연 | 김현애, 신민원(소프라노), 성미진(메조소프라노)

조윤환(테너), 박대용(바리톤)




주 최 | 문 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051)637-0125


후 원

 부산광역시


 금융그룹 부산은행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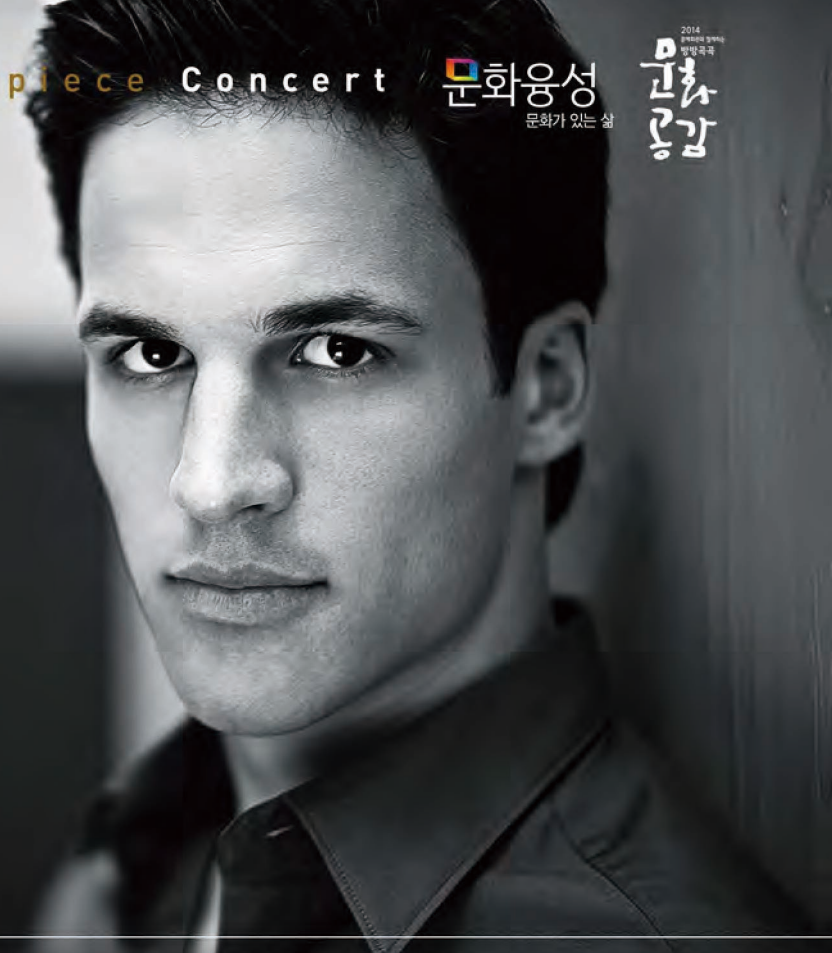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KNN

* 본 공연은 2016년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며, 음악회 지정기부금, 출연인 재능기부로 개최됩니다.

The 53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2014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베를린 필하모닉 클라리넷 수석

ANDREAS OTTENSAMER

Piano **Jose Gallardo** 예술감독 김원명

2016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06.01 [수] 오후 08:00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문 의 | 051)220-5812 예 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CULTURE

LIFE

May 2016
vol.293
INVITATION TO THE ARTS

28 프리뷰

34 리뷰

36 프로그램 가이드

52 새로 나온 음반

53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해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특별연주회
2016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지휘 장운성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박신해



부산시립예술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2016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무대가 5월 한달간 4차례 펼쳐진다.

5.12 (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5.25 (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5.26 (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5.27 (금)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5월 12일 금정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6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첫 무대는 5월 12일 금정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한국가곡&가요' 무대로 꾸며진다.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남춘, 보리밭, 고향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가곡과 영원한 가객 김현식, 김광석의 대표곡,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어머니와 고등어 등 우리가 평소 즐겨부르는 가요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은 5월 25일 영도문화회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또 한번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26일과 27일 동래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난다. 현재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장운성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박신해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벨리니 오페라 '카롤렛가와 몬테규가' 서곡을 시작으로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 '일어나라 태양아', 차이코프스키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번스타인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오늘밤', 프로코피에프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의 춤', '티발트의 죽음' 등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서곡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림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에 유학 중이던 지난 1993년 프로코피에프 국제지휘자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 거장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있는 마린스키극장에서 지휘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지휘자 장운성은 1998년에는 일본 도쿄 국제지휘자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 일본의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장운성은 그동안 서울시청소년교

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울시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 울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일본 오사가 칼리지 오페라하우스 수석지휘자로 있으며 국내외 무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이윤경은 고대국 성악콩쿠르 대상, 한국음협 주최 전국 성악콩쿠르 최우수상, 중앙콩쿠르 29년 역사상 최초로 수도권 이외 대학 출신 성악 우승,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이탈리아 De Nardis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음색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테너 박신해는 계명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귀도 칸텔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이탈리아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현재 대구성악회 회원으로 독주회 및 협연무대,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5월 가정의 달 기념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이야기

지휘 이정필(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청소년 연주단체와 함께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이야기'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5.18(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교사오카리나합주단, 타로 사물놀이패, 울산영재청소년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김민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무분별하게 밀어닥친 외래문화 홍수 속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음악을 들려준다.

연주회 첫 무대는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과 함께하는 무대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공식지정음악으로 선정된 양방언 곡 '프론티어'와 뉴에이지 음악가 조지 윈스틴의 편곡으로 더욱 유명해진 파헬렐 '캐논변주곡'을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편곡, 리코더 합주로 들려준다. 지난 2003년 기장지역 청소년들로 창단된 후 그동안 13차례 정기연주회와 파리나루 십자가합창단, 빈소년합창단,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 등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은 리코더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전국의 청소년 리코더합주단과 함께 '기장리코더페스티벌'을 주관해오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산유화 어린이민요합창단(단장 최윤영)과 함께하는 무대로, 부산지역에 전해져오는 토속민요인 '치이총각아리랑', '장사치노래'를 백규진 편곡으로 들려준다. 국악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산유화 어린이민요합창단은 특히 경상도지방의 토속민요를 발굴 채집, 공연을 통해 꾸준히 소개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창단 후 9차례 정기공연을 비롯 수영구 광안리어방축제, 부산문화회관 2015 평화통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지역의 아리랑을 선율에 담아낸 김만석 작곡 '부산아리랑', '동래아리랑', '다대포아리랑'을 통해 희로애락의 감정을 아리랑 곡조로 자유롭게 풀어내며, 부산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 오카리나합주단(단장 조성경)은 영화 '하모니'에 삽입되어 더욱 유명해진 '에레스투(Eres Tu)'와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듯한 경쾌한 리듬의 연주곡인 '딱따구리폴카'를 오카리나 연주

로 들려준다.

이어서는 부산예고 1학년 김민주가 각종 방송과 영화, 드라마 등에 배경음악으로 쓰여 우리 귀에도 익숙한 몬티의 바이올린협주곡 '차르다시'를 국악관현악 협연으로 들려주며 박범훈 곡 국악가요 '배 띄워라'를 김해 신명초등학교 5학년 박동희의 흥겨운 노래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합주곡 '신모듬'으로 이경희(뽕과리), 최정욱(장구), 권두술(북), 이현서(징)으로 구성된 국악전문단체 타로팀이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국악전문단체 '타로'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퓨전음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악전문단체로, 지난 2004년 창단 공연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기획공연,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공연,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개막식 축하공연, 부산세계꽃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OECD세계포럼 환송만찬회, 조선통신사 한일 교류대회, 한·중 수교 20주년 문화교류기념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Pre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이건륜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 'Universal Busan'

지휘 이진륜(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우)



올해로 창단 43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전통을 이어갈 수석지휘자 이진륜의 취임연주회가 5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5.19(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6

5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진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이 출연, 부산을 테마로 한 새로운 창작곡들과 뮤지컬,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새롭게 비상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완성도 높은 음악과 풍성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부산 출신의 젊은 지휘자 이진륜은 중앙대학교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한 후 뮤지컬, 실용음악, 국악 등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동안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 해왔다. 그동안 부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국내외 500여 회 이상 공연을 통해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호평받은 이진륜은 특히 미국 대통령 초청 연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작품 연주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알린 바 있다. 2011년 개인 앨범을 직접 작곡, 프로듀싱하여 발매하는 등 작곡가로도 활동해온 이진륜은 구미국제음악제에서 오케스트라 창작곡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강한 열정과 섬세한 지휘를 통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새 시대를 열어갈 이진륜은 소리로 감동을 주는 합창음악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노르웨이 작곡가 올라 야일로의 'Song of the universal'를 시작으로 지휘자 이진륜의 창작곡 'Busan Children's Mass', 김은국 편곡 'I Love Busan', Disney Song, 애니메이션 메들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제곡, Over the rainbow(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All I ask of you(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I could dance all night(뮤지컬 '마이 페이

레이디), One(뮤지컬 '코리서라인')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이진륜 수석지휘자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출연한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1999년 창단한 후 지금까지 23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부산항 개항 133주년 기념행사, 부산시민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 조선통신사 행사 특별출연 등 해운대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동래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래초교 옥새미합창단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전인교육에 적합한 합창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무대에서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어머니(조성은 곡)', 'We go together'(뮤지컬 '그리스' 중, 황수진 편곡)를,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은 '넬라 환타지아(엔니오 모리코네 곡)', '중화반점(류에이 루이스 곡)'을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V

지휘 필립 만(Philip Mann)



클라리넷 임상우



‘풍부한 표현력으로 품위와 열정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지휘자 필립 만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5.20(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5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V’에서는 객원 지휘자 필립 만이 지휘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 임상우의 협연으로 라벨의 ‘어미겨위’ 모음곡을 첫 곡으로 모차르트 유일의 클라리넷 협주곡인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622’, 차이코프스키 걸작 교향곡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오페라, 교향곡, 창작음악, 실험적 콜라보 등 광범위한 장르를 소화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은 지휘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필립 만은 현재 아칸소 심포니 오케스트라(ASO)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전례 없는 예술적 성장과 객석 점유율 경신, 5개의 새로운 공연 시리즈, 클래식 프로그램 주간의 확대, 오페라 전체 무대 상연, 로빈슨 뮤직센터의 새 콘서트홀 리노베이션, ASO 본부 내 리허설룸과 챔버홀 신축 및 6년 연속 흑자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세계음악계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비엔나 필하모닉의 카라얀 펠로십을 수상한 필립 만은 퀘벡 심포니, 조지아주 오페라, 사이프러스 내셔널 심포니,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단과 한 무대에 서았으며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비엔나 필하모닉, 로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옥스퍼드 시티 오페라 및 옥스퍼드 프로 뮤직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뮤직 인 더 마운틴 페스티벌 및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에서 지휘를 맡기도 한 그는 조슈아 벨, 사론 이스빈, 드미트리 알렉세예프, 미도리, 마빈 함리쉬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과 공연했으며 존 코털리아노, 제니퍼 히그돈, 사무엘 아들러, 마이클 토크, 루카스 리치맨, 크리스토퍼 테오파니디스 등 정상급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하기도 했다. 객원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필립 만은 링컨센터 에이버리 피셔 홀과 런던 바비칸센터에서의 공연들을 매진시킨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샤를 페로의 동화집 ‘어미겨위 이야기’를 모티브로, 동화 속 이야기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낸 라벨의 ‘어미겨위’ 모음곡과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622’, 작곡가 특유의 우수에 젖은 아름다운 선율과 3악장에서 왈츠를 사용하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큰 화제가 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협연자인 클라리네티스트 임상우는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에 수학하던 중 2007년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발탁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과 타고난 음악적 감각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임상우는 지난 2009년 한국인 클라리네티스트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뷔페 크랑퐁(Buffet Crampon) 클라리넷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
2016 가요합창음악회 '추억 만들기'

지휘 | 전상철



바이올린 | 조현미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최고의 음악선물 가요합창음악회 2016년 무대가 5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5.21(토)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2

2016 가요합창음악회 '추억만들기'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선보였던 '7080 가요합창음악회'에서 진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추억만들기'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2016 가요합창음악회에서는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가객' 김광석, 김현식, 그리고 유재하의 주옥같은 명곡을 부산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올해로 20주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추모열기가 뜨거운 김광석의 '나의 노래'로 시작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거리에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른 즈음에', '불행아' 등 김광석의 대표곡을 혼성합창으로 들려주는 '추억 1' 무대에 이어 '추억 2'에서는 단 한 장의 앨범으로 전설로 남은 유재하의 대표곡 '그대 내 품에', '가리워진 길'을 여성합창으로 들려준다.

특히 '추억 2'에서는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이자 아르스 현악4중주단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가 서정적인 연주와 함께 유재하 특유의 짙은 감성을 들려준다. 지난 2003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는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19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MBC 창사 제44주년 기념음악회, 제3회 제주살내악페스티벌, 부산시립미술과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사랑의 가객' 김현식의 곡을 소개하는 '추억 3'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했어요', '골목길' 등 그의 대표곡이 남성합창으로 선보이며, '추억 4'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강종철, 김태우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을 들려준다. 유재하, 김현식의 가장 대표적인 곡을 혼성합창으로 감상할 수 있는 '추억 5'에서는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추억 만들기가', 마지막 무대인 '추억 6'에서는 김현식 '지난날',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일어나로 우리들 마음속'에 서로 다른 의미와 추억으로 남아있는 기억 속 그 노래를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준다.

프로그램

오프닝

나의 노래(조혜영 편곡)

추억 1(혼성)

거리에서(천광호 편곡), 사랑이라는 이유로(조혜영 편곡), 서른 즈음에(이은진 편곡), 불행아(문지은 편곡)

추억 2(여성)

그대 내 품에(최석태 편곡), 가리워진 길(최석태 편곡)

추억 3(남성)

사랑했어요(최석태 편곡), 골목길(문지은 편곡)

추억 4(solo)

이등병의 편지(강종철 solo), 사랑했지만(김태우 solo)

추억 5(혼성)

사랑하기 때문에(최석태 편곡), 내 사랑 내 곁에(최석태 편곡), 비처럼 음악처럼(문지은 편곡), 추억 만들기가(문지은 편곡)

추억 6(혼성)

지난날(문지은 편곡),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문지은 편곡), 일어나(이은진 편곡)

Preview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푸르른 날의 오페라, 발레, 뮤지컬

지휘 백진현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시영민



클래식 음악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푸르른 날의 오페라, 발레, 뮤지컬'이 5월 3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5.31 (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2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1, 3148

중국 Tianjin Symphony Orchestra 수석 객원지휘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객원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시영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발레 모음곡 등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탁월한 해석력과 상상력으로 연주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지휘자 백진현은 계명대학교와 미국 뉴욕 맨하탄음대 대학원(MM), 브룩클린 음악원(PGD), 하트포드음대 대학원 지휘과, 러시아 Far Eastern 국립예술대학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중국, 몽골, 일본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섰으며 수많은 오페라와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지난 2003년, 200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음악콩쿠르, 2015 홍콩국제청소년음악콩쿠르, 대만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백진현은 '2007 전국교향악축제'에서 비평가로부터 최고지휘자로 선정됐으며 제27회 오늘의 음악가상, 2008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백진현은 부산윈드오케스트라,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음악세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현재 동서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박현진은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랑크 리스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 국영방송국 MDR합창단 객원단원, 독일 국립 바이마르 극장 오펜슈티디오 전속 솔리스트로 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2013년 귀국독창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시작한 박현진은 현재 서울예술종합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예고 외래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베를린 Hanns Eisler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리톤 시영민은 그동안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중국 Ningbo 국제성악콩쿠르,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 해외파견콩쿠르, 부일 성악콩쿠르, 대구 성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마지막 오페라이자 가장 도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오페라 '황금닭' 모음곡으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세비아의 이발사',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모차르트 '마술피리'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넘버, 들리브 '코펠리아'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등 발레모음곡을 들려준다.

Review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하순봉 작곡가



34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 4월 7일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란 주제로 지휘자 최수열과 바수니스트 최영진을 초청해 제518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계절과 부산의 이미지에 맞춘 선곡으로 멘델스존의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서곡과 로시니의 바순협주곡 '실험적 협주곡', 슈만의 교향곡 제1번 '봄'이, 특히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최수열과 바수니스트 최영진의 협연으로 발표되었다. 최수열은 작곡가 진은숙의 아르스노바를 비롯 새로운 컨셉의 콘서트와 슈베르트 전곡 프로젝트,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등 도전적인 레퍼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이다. 최영진은 부산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고 바이로이트쿠클르, 동아콩쿠르 등을 수상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순객원 부수석, 노르웨이 트론트하임, 일본 NHK, 뉴재팬 필하모닉을 거쳐 현재 도쿄 필하모닉 바순 수석으로 있는 국제적인 바수니스트이다.

첫 곡 멘델스존의 서곡은 괴테의 시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된 것으로 핑갈의 동굴만큼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멘델스존 특유의 우아함과 밝음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바순협주곡은 기악곡이 드문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에겐 특히 드문 협주곡인데 '실험적 협주곡'이란 부제와는 달리 특별히 실험적인 면은 없었지만 1, 2악장에서 진중하고 깊은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악장에서는 로시니 특유의 악기중첩에 의한 경쾌한 크레센도가 잠깐씩 보이기도 한다. 사실 로시니는 독일 작곡가들의 악보를 베끼면서 관현악법을 많이 공부한 작곡가로 이 협주곡에서도 그런 그의 관현악에 대한 내공이 잘 드러나 보였다. 최영진의 바순은 특히 음색이 맑고 프레이즈가 유려하게 느껴졌다. 슈만 교향곡 제1번 '봄'은 시인 아돌프 뵘의 '봄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교향곡 '라인'과 함께 슈만의 대표적 교향곡이다. 오케스트라는 1부에서 조절해오던 음량을 마음껏 터트리며 슈만이 보았던 독일의 봄을 이곳 부산에서도 다시 보여주었다. 지휘자 최수열은 강한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적절한 비팅과 안정된 템포로 서두르지 않으면서 균형잡힌 음악이란 느낌을 주었다.

최근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의 공백으로 객원지휘 체제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날도 전체적으로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연주였지만 평소보다 조금은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오케스트라는 서양음악을 대표하는 정수이다. 오케스트라를 위해 많은 걸작들이 작곡되고 또 그 작품을 인쇄하는 출판업이 발달하고, 그에 맞는 큰 연주홀과 악기들도 개량이 된다. 그리고 마에스트로와 새로운 시민계급, 음악전문교육기관의 출현들이 이어졌다. 한마디로 음악의 발달에 오케스트라가 그 중심에 있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역사는 '칸토라이 규약서'에 1548년에 창단되었다고 나와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랭킹1위 오케스트라인 네덜란드의 콘서트허바우는 시작 때 겨우 6명의 상인들이 이 홀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차대전 후 빈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파괴된 오페라하우스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세계적인 모든 명문 오케스트라들은 모두 이런 역사의 부침과 흥망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위치에 와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62년에 창단되었으니 그 역사의 일천함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태에 너무 일회일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냥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아가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좋은 지휘자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보자!

Review

아름다운 계절, 그러나 외로웠던 연극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최우수상 수상작 '표풍'

봄을 알려주는 전조는 여러 가지다. 부산연극제도 그 중 하나다. 부산의 새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전조, 부산연극제가 올해로 34회를 맞았다. 올해는 9편이 경연에 참가하여 서사와 연기, 몸짓을 융합시켜 아름다운 연극을 공연하였다.

극단 '세진'의 <모의>는 주식투자의 귀재인 주인공의 몰락과정에서의 음모를 다루었는데 맑은 물에 짙은 색 물감이 퍼져 나가듯 극적 흥미가 극장 안을 가득 채웠던 작품이다. 주식폭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험박과 납치, 재산을 빼돌리려는 모사장의 머리싸움 때문에 긴장의 사건이 연속됐다. 연출은 고조된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조명, 객석, 배우들의 연기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켰다. 오영섭, 최현경의 연기는 정확한 발음과 고조된 여러 감정상태를 균질되게 보여줬다. 김세진 연출가는 연극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저주가 풀린 듯 연출상을 수상했다. 서사성이 강한 작품 연출에 능숙한 그의 장점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극단 '한새벌'의 <섬섬옥수>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품이었다.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의 공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육

체적 사랑이 정조관념을 넘어 인간의 자연스런 행태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젊은 여주인공의 행동에서 달관의 경지가 읽힌 점은 약간 아쉬웠다.

극단 '바문사'의 <표풍>은 소리를 동작으로 바꾼 마법을 선보였다. 거문고의 줄, 문현·유현·대현·무현 등을 음률의 신으로 표현하였다. 배우들은 입으로 거문고 소리를 내는가 하면 못다한 소리는 춤과 동작으로 표현했다. 거문고에 삶과 철학을 압축시켜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연극을 직조하였다. 연극의 표현 영역을 확장한 최은영 연출가의 상상력이 돋보였다.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달빛소나타>는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딸의 비극이 가족 파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위해 엽기시릴러에 부조리극적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성과 난해함을 동시에 변주하였다. '더블스테이지' 김동민이 그간 지속해온 연극작업의 특징을 압축시킨 작품이었다. 배우들의 연기는 연극일반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흥분과 불안을 격양상태로 드러냈다. 연기가 서로 조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극단 '배우창고'의 <급제록>은 과거시험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간화소로, 그 주변의 이야기를 부속화소로 사용하였다. 주혜자의 연극적 재능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극적 재미를 오히려 방해한 작품이었다. 움직임과 몸짓이 주요 표현 수단이었지만 이 때문에 작품의 서사성이 약화되었다.

국제신문은 제34회 부산연극제를 상세하게 보도해 연극제 흥행에 많은 기여를 해 주었다. 반면, 부산일보 및 지역 방송사는 부산연극제 보도에 인색했다.

연극에는 돈도 권력도 없다. 연극에는 궁벽하나 흐드러진 예술정신은 풍성하다. 제34회 부산연극제에서 공연된 이 좋은 연극도 부산 언론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산연극의 예술정신은 정말 외로울 수 밖에 없다.

심콩양상블 Pit A Pat
**WHAT ELSE? 더 콘서트,
그 첫 번째 이야기**

일 시 | 5월 1일 일요일 오후 6: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배아름 010-4817-9645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로 관객과 함께 두근거림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창단된 심콩양상블 Pit A Pat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앞으로 딱딱한 클래식 공연에서 벗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관객과 공유하겠다는 심콩양상블 Pit A Pat는 5월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봄의 클래식을 수준높은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1부 무대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영상과 사연으로 전하는 2부 무대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 연주/배현우(클라리넷), 부상현(호른), 강혜원(바이올린), 배주연(첼로), 조은성(피아노)
- 협연/이강호(성악)
- 해설/배아름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근대작가전
(The Modern Theater : The Beginning)

일 시 | 5월 6일(금)~15일(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입장료 |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
(Go World Festival, Dynamic Fringe, 축하공연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2016 부산국제연극제.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은 ‘근대작가전(The Modern Theater : The Beginning)’으로, 지금 이 시대 자리잡은 연극의 시발점이 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앞으로 연극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학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부산 연극의 새로운 실험들을 지지하는 무대이다.

[개막작] 러시아 로만 비크류 극단
‘하녀들(The Maids)’
6일(금) 오후 7:30, 7일(토) 오후 2:00, 8:00 중극장



자매가 주인공인 장 주네 원작의 ‘하녀들’을 남자배우가 연기하는 로만 비크류 극단 ‘하녀들’은 아르누보 스타일의 무대세트의 정교함과 가부키에서 영감 받은 분장, 몸의 곡선을 살리는 의상 등이 어우러져 로만 비크류 극단만의 독특한 ‘하녀들’을 선보인다.

프랑스 LMN ‘수전노(L'avare)’
7일(토)~8일(일) 오후 5:00, 9일(일) 오후 8:00 소극장
몰리에르의 ‘수전노’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노후, 알츠하이머 같은 현대적 설정을 가미시켜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던져준다.

한국 극단 하평씨 ‘파우스트(Faust)’
8일(일) 오후 5:00, 9일(월)~10일(화) 오후 8:00 대극장
한평생 연구에 매진하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폴의 계약을 시작으로 자신의 이상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조지아 코테 말자니시빌리 극단&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극단 ‘광인일기(The Mad Man's Diary)’
9일(월)~11일(수) 오후 7:30 중극장
오직 자기 내면의 광기 속에서만 자유를 찾은 한 남자를 통해 온갖 정보와 사건이 난무하는 이 사회에

서 과연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를 되물어본다.
프랑스 LMN ‘사랑에 대하여(Des Amours)’
10(화)~11일(수) 오후 8:00 소극장



체호프의 대표적인 단편극 ‘청혼’, ‘담배 해약에 관하여’, ‘꿈’을 엮은 단편 모음극. 러시아 특유의 광기와 이탈리아의 독특한 해학을 잔인함과 격정이 균형을 이루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들로 적절히 극에 담아냈다.

[축하공연] 살거스 ‘영혼들의 축제’
12일(목) 오후 7:30 야외무대

[축하공연] 2016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한국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표풍’
13일(금)~14일(토) 오후 7:30 중극장

2016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신라시대 거문고 악곡 ‘표풍’을 모티브로 예술가의 삶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 작, 연출/최은영

일본 치텐 극단 ‘벚꽃동산(The Cherry Orchard)’
13일(금) 오후 8:00, 14일(토) 오후 3:00 소극장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 메이홀드 센터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가진 후 매년 러시아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 치텐이 새롭게 구성한 무대.

[폐막작] 프랑스극단 LMN ‘루이 블라스(Ruy Blas)’
14일(토)~15일(일) 오후 5:00 대극장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음모, 권력, 복수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손은혜 귀국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 5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선화예고 졸업 후 오스트리아 유학,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최고 점수로 졸업하고 귀국한 클라리네티스트 손은혜 귀국독주회. 손은혜는 그동안 독주회와 실내악,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적 폭을 넓혀왔으며 현재 경성대학교에서 후

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프랑세/주제와 변주
브람스/클라리넷소나타 제1번 작품 120
도니제티/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Study’ 제1번
모차르트/클라리넷오중주 K.581 가장조

2016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일 시 | 5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실버트레인 02-338-3513



일본 뉴에이지 음악의 선두 주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의 프로젝트 연주그룹 '어쿠스틱 카페' 부산공연.

리더인 츠루 노리히로를 중심으로 첼리스트 가라사와 아야코, 피아니스트 니시모토 리에가 활동하고 있는 '어쿠스틱 카페'는 츠루 노리히로가 작곡한 'Last Carnival'이 영화 '달콤한 인생'과 드라마, CF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바 있다.

어쿠스틱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린 서정적인 연주로 음악팬들을 매료시켜온 '어쿠스틱 카페'는 그동안 오리지널 음악 뿐 아니라 클래식, 영화음악, 팝, 탕고, 뮤지컬 등을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한 뉴에이지 크로스오버와 재즈, 한국 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왔다.

제27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663-4918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현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의 정기 연주회.

경성대학교 교수이자 부산 체임버오케스트라 예술총감독, 경북도립교향악단 악장인 임병원 교수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경성

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의 협연으로 감미로운 현악양상미를 들려준다.

지난 1990년 창단 후 올해로 27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 경성현악합주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전문연주단으로서의 기량을 선보여왔다.

[프로그램]

- 바르톡/루마니아 민속무곡
- 슈타미츠/비올라협주곡 라장조 작품 1
- 드보르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
- 지휘/임병원
- 협연/비올리스트 김가영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일 시 | 5월 16일(월)~27일(금) 오후 4:00,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매년 5월 열리는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반여고, 경남고, 남산고, 학산여고, 부산정보고, 문현여고, 화명고, 개성고, 부산진고, 만덕고, 해강고, 한국과학영재고, 부산중앙고 등 부산지역 13개 고등학교 연극반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일정]

- 16일 반여고 '유랑 극단 아리랑'
- 17일 경남고 '관광지대'(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남산고 '오아시스 세탁소 승격사건'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18일 학산여고 '개천의 용간지'
- 19일 부산정보고 '수상한 흥신소'
- 20일 문현여고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 21일 화명고 '헤더웨이 집의 유령'
- 22일 개성고 '오아시스 세탁소 승격사건'
- 23일 부산진고 '숙박업소 425'
- 24일 만덕고 '불타는 별들'
- 25일 해강고 '천국의 아이들'
- 26일 한국과학영재고 '꿈꾸는 별들'
- 27일 부산중앙고 '칼이&수마'

부산음악사랑회 제10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사랑회 011-835-8731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의 연주 활동과 음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부산음악사랑회의 10번째 정기 연주회.

지난 2005년 7월 창립된 후 지금까지 50여차례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개최해온 부산음악사랑회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강희주, 김경숙, 배화자, 오옥화, 이승자, 정지윤
- 테너/김성보, 박안수, 장철남
- 바리톤/송은섭, 한성권
- 베이스/정광덕
- 연주/BS오페스양상블(바이올린 여주현, 서은아, 비올라 김규, 첼로 하경희, 더블베이스 김진욱, 클라리넷 최우선, 피아노 김보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5월 가정의 달 기념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이야기

일 시 | 5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제184회 정기연주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이야기'.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가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교사오카리나합주단,

국악전문단체 '타로', 울산영재청소년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김민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음악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 양방언/프론티어
- 백규진(편곡)/캐논변주곡

- 백규진(편곡)/차이총각아리랑, 장사치노래
- 김만석(작곡)/부산 아리랑, 동래 아리랑
다대포 아리랑
- J.C.Calderon(편곡 백규진)/Erestu
- 백규진(편곡)/딱따구리 폴카
- 몬티(편곡 백규진)/바이올린 협주곡 '차르다시'
- 박범훈/국악가요 '배피워라'
-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국악협주곡 '신모듬'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 협연/가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단장 최윤영)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
부산교사오카리나합주단(단장 조성경)
김민주(바이올린, 부산예고 1학년)
박동희(가요, 김해신명초 5학년)
국악전문단체 '타로'(팽과리 이경희, 장구 최정욱, 북 권두술, 징 이현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이건륜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 'Universal Busan'

일 시 | 5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6



올해로 창단 43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전통을 이어갈 수석지휘자 이근륜의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Universal Busan'.

새롭게 비상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근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이 출연, 부산을 테마로 한 새로운 창작곡들과 뮤지컬,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완성도 높은 음악과 풍성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부산 출신의 젊은 지휘자 이근륜은 중앙대학교에서 작곡

과 지휘를 전공한 후 뮤지컬, 실용음악, 국악 등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동안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왔다.

|프로그램|

올라 아일로/Song of the universal
엔니오 모리코네/넬라 환타지아
류웨이 루이스/중화반점
조성은/어머니
황수진(편곡)/We go toghter (뮤지컬 '그리스' 중)
이근륜/Busan Children's Mass
이근륜(편곡)/Disney Song
박준모(편곡)/애니메이션 메들리
이근륜(편곡)/Over the rainbow(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중), All I ask of you(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등 수록

- 지휘/이근륜(수석지휘자)
- 지도/이영옥, 김양자, 노금선
- 특별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4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4011-0560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41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96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두차례 피아노 페스티벌과 우수 신인 피아노 콩쿠르 등을 가져오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이들에 걸쳐 첫날인 19일에는 피아니스트 전숙영 독주회가, 20일에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들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19일 전숙영 피아노 독주회

20일 듀오의 날

- 연주/송지은&윤민영, 고정영&박희정, 박정남&조은주, 장근미&박선미&김해옥, 김무성&조윤정&김수연, 김다정&김은정, 강지영&이민숙, 황정미&강성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V

일 시 | 5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5, 3106



'풍부한 표현력으로 품위와 열정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지휘자 필립 만이 객원 지휘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 임상우의 협연으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V'.

현재 아칸소 심포니 오케스트라(ASO) 음악감독으로 있는 필립 만은 오페라, 교향곡, 창작음악 등 광범위한 장르를 소화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은 지휘자로 명성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 라벨/어미 거위' 모음곡
-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4
- 지휘/필립 만(Philip Mann)
- 협연/임상우(클라리네티스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기획공연 2016 가요합창음악회 '추억 만들기'

일 시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2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최고의 음악선물 2016 가요합창음악회 '추억 만들기'.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선보였던 '7080 가요합창음악회'에서 진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추억만들기'라는 주제로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가객' 김광석, 김현식, 그리고 유재하의 주옥같은 명곡을 부산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사하는 이번 무대는 '추억만들기'라는 주제로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가객' 김광석, 김현식, 그리고 유재하의 주옥같은 명곡을 부산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특별출연/조현미(바이올린)
- 연주/김진훈(드럼), 김정태(기타), 홍광현(기타)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2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0-4842-6688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2001년 3월 '부산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2003년 9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연 2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아대학교 김용문 교수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토벤/스태판왕' 서곡
- 슈베르트/음악에 부침
- 엘가/사랑의 인사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3일-24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165-1219

...



1990년 창단 이후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23일 피아니스트 정은정, 신정운의 듀오무

대에 이어 23일에는 지난 3월 열렸던 제21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예지, 양현영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권혜령 교수, 경성대학교 최윤희 교수, 조현선 교수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들의 듀오무대를 선사한다.

23일 정은정, 신정운 듀오 리사이틀

24일 제51회 정기연주회

- 연주/김예지&양현영, 박정남&김태연, 배수정&이화영선, 박태희&권혜령, 최민경&임효진, 이양희&박미숙, 김병기&조현선, 김민정&최윤희

피아니스트 김민주 귀국 독주회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 의 |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010-9885-9237

...



중앙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카셀 시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입학한 후 지난해 2월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민주 귀국 독주회.

독일 유학시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연주자로서 실력을 쌓아온 김민주는 귀국 후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청년 음악가 프로젝트 연주', 을숙도문화회관 객원초청연주, 사해예술제 인문학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현재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솔리스트, 합창단 반주자, 피아니스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김민주는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청중과 소통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음악적 행보를 넓혀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2번 BWV 813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 리스트/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S. 434 등

제1180회 MBC목요음악회 한스쇼콰이어 '통통콘서트'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

실용음악에서부터 뮤지컬, 댄스, 랩퍼, 비트박스, 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된 한스쇼콰이어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1180회 MBC 목요음악회.

지난 2013년 오디션을 통해 결성된 한스쇼콰이어는 그동안 합창과 춤을 기반으로 대중예술에서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무대공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한국의 쇼콰이어'를 줄여 이름 붙인 한스쇼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7080 가요에서 올드팝, 뮤지컬 넘버까지 통통튀는 젊음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내며 세대를 뛰어넘어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정환
- 작, 편곡/전경호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단장 김형욱 010-9044-7576

...

1987년 창단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한 한울림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비롯해 창작연가곡 '아름다운 부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 주관, 광복60주년 기념 아시아 한마당, 한형석 항일음악회(중국 북경 국립중앙음악원)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상임지휘자 김창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성가곡, 가요,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창돈
- 피아노/전해란



바리톤 유용준 독창회

일 시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유용준 010-2138-1104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실기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밀라노 Claudio Abbado 시립음악원 오페라과, 보컬코치를 졸업하고 그동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바리톤 유용준 독창회.

유용준은 그동안 제11회 대학교향악축제 협연 무대를 비롯해 이탈리아 'Casa Verdi' 연주회, 'Comune di Baranzate' 초청연주, 'Teatro continuo burri' 초청연주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라트비아타' 주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 스트라벨라/주여 들어주소서
- 마르첼로/나를 태우는 불길이어
- 말러/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 차이코프스키/돈 주앙의 세레나데 등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지홍
- 피아노/최영민

피아니스트 김현정 초청 독주회 영화 속 쇼팽 '쇼팽과 사랑에 빠지다'

일 시 | 5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



격동적인 에너지 속에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과 유려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곡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해석하는 연주자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김현정 초청 독주회.

현재 아르템 공연예술기획 대표 및 음악예술감독으로 있는 김현정은 그동안 '가족 행복콘서트',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아르템 오페라단의 이자오페라시리즈', '피아니스트 김현정 특독 하우스 콘서트' 등 자신만의 색깔 있는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속의 쇼팽-쇼팽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테마로 영화 속 배경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쇼팽 '녹턴 제13번 다단조 작품 48', '왈츠 작품 64 강아지 왈츠',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발라드 제1번 작품 23' 등 감미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KNN방송교향악단 창단연주회
노자와 베토벤**

일 시 | 5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지역방송 최초의 오케스트라로 화제를 모은 KNN방송교향악단 창단연주회.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9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지성적 사유와 감동이 있는 무대로, 앞으로 부산, 경남지역

외에도 전국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클래식 공연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자와 베토벤'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창단 연주회에서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교수를 초청, 동양철학과 서양음악으로 노자와 베토벤이 만나 음악과 감동, 운명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 휴머니즘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작품 96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작품 67 등 수곡

**2016 Arts Festival 예술제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9회
음악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31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4-1232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 합창지휘/김성배
- 관악지휘/오창목
- 연주/피아노 이선우, 김지현, 곽지혜, 이혜진, 김성혜(3학년), 이정혁(2학년), 바이올린 오성경, 최주은(3학년), 첼로 이숙현(3학년), 클라리넷 이예찬(3학년), 클라리넷 신원혁(3학년), 소프라노 정지영(5회 졸업), 김은희(3회 졸업), 권인영(3학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푸르른 날의 오페라, 발레, 뮤지컬**

일 시 | 5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1, 3148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클래식음악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중국 Tianjin Symphony Orchestra 수석 객원지휘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객원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시영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발레 모음곡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 림스키-코르사코프/오페라 '황금 닭' 모음곡 중 '결혼 잔치와 도둑 왕의 슬픈 죽음'
- 로시니/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었던가'
- 드리브/발레 '코펠리아' 모음곡 중 '차르다시'
- 차이코프스키/발레 '백조의 호수' 모음곡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시영민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Dream Performance 2016**

일 시 | 5월 31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7천원
문의 |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627-7992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순수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뽀리, 재즈, 힙합, 비보잉까지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들을 선보이는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Dream Performance 2016'.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일반인들과 댄스문화를 같이 호흡하는 공간으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댄스로 관객과 하나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 기획/김은정(실용무용과 학과장)
- 출연/정수연, 오미리, 이고은, 이진실, 장선재, 최광은, 한승우, 김태원, 김무승, 이한영, 원서영, 정경주, 김은영, 문진솔, 김혜림, 최명학, 박예원, 최단비, 문혜원, 이유정



**제5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6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5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현애, 신민원,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조윤환, 바리톤 박대용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태석 신부가 작곡한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묵상(2016)'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소프라노 김현애, 신민원,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조윤환, 바리톤 박대용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일, 9일 공연없음 (*5월에는 부산국제연극제 일정으로 7일, 14일, 21일 공연은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5월 28일 부산시립합창단
'애창명곡과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 김성태/동심초
- 김동진/목련화
- 마르티니/사랑의 기쁨
- 팔보/그녀에게 내 말 전해주소
- 드리브/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 로시니/피렌체의 꽃 파는 처녀
- 슈톨츠/비엔나는 밤에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소프라노/최선희, 이정희, 양은제, 박성의, 손사론
- 엘토/김윤희, 손미숙, 김미경, 주유진
- 테너/김진영, 김추리, 최원갑
- 베이스/문동환, 김태우, 오승중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Music 음악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지난 1986년 음악감독 및 리더로 있는 前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부산신포니에타는 이번 무대에서 호쾌한 타건, 변화무쌍한 음색, 청중을 사로잡는 스타일리시한 기교의 피아니스트 박중화 서울대학교 교수와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리더 및 음악감독/김영희
- 피아노/박중화(서울대학교 교수)

권준 피아노 독주회

리리시즘 예찬(Ode to Lyricism)

일 시 | 5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권준 010-8717-796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 미국 신시네티 음악대학(연주학 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권준 독주회.

Marsal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입상, CCM Concerto Competition에서 우승한 바 있는 권준은 미국과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의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CCM Symphony Orchestra, 불가리아 파자르주크 주립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베토벤 기획연주 시리즈 등 다수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라장조 Hob.42
-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12
- 베르그/피아노 소나타 작품 1 등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일 시 | 5월 3일-4일 화-수요일 오전 11:00, 5일-8일 목-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2만원(5세 이상 입장 가능)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14



국립국악원이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후 5년간 전석 매진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지난 2009년 아시테지 국제아동청소년연극 페스티벌에 공식초청받아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던 '오늘이'는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신화 '원천강 분풀이'를 바탕으로 우리음악과 노래, 춤을 결집한 어린이 음악극으로, 주인공인 '오늘이'가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원천강'으로 가던 중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한 가지씩 갖고 있는 친구들의 문제를 차례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친구와의 우정, 서로 아끼고 돕는 사랑,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헌신 등 중요한 가치를 전해준다. 이날 무대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 나만의 악세사리 만들기, 풍선아트, 찾아가는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이방인의 노래

일 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7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남미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소리꾼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로 들려주는 '이방인의 노래'.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부부 오메로와 라사라의 인생 이야기를 그린 '이방인의 노래'는 '사천가' '역척가' 등으로 유명한 이자람이 영웅적 서사를 그렸던 전작과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았다. 이자람은 주인공 공인 대통령, 극 해설자, 웨이터, 보석상점 상인까지 수십명의 인물을 실 세 없이 오가며 맛깔나는 소리와 변화무쌍한 연기, 연주가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 바작, 작창, 음악감독/이자람
- 연출, 드라마틱그/박지혜
- 악사/이향하, 권선욱

박지은 초청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5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1만5천원 (R석 단체 10명 이상 3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놀라운 연주력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성을 지닌 플루티스트 박지은은 초청무대.

지난 2005년 43대 1의 경쟁을 뚫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뽑혀 화제를 모은 박지은은 미국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맨하튼음대, 예일대학교 대학원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립교향악단 객원수석,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 수석주자로 활동한 바 있다.

[프로그램]

- 쇼팽/녹턴 제20번 올림파단조
- 칼 프렐링/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 55
- 베르디-크라캄프/라 트라비아타 환상곡 작품 248
- 폴 쇤펠트/네 개의 기억들 등
- 피아노/김봄날

2016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집시시네마 기타리스트 박주원

일 시 |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신들린 핑거링으로 대중음악계에 집시 기타 열풍을 일으킨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무대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5월 무대. 팝과 재즈의 감수성을 두루 갖춘 전방위 연주자로 평단으로부터 '젊은 거장'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한 박주원은 지난 2010년 한국대중

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재즈전문지 '재즈피플'의 리더스풀에서 2010년, 2011년 최우수 기타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새음반 '집시 시네마'를 통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주제곡들을 집시 스타일로 재해석해 음악팬들의 귀를 사로잡은 박주원은 이번 무대에서 음반에 수록된 추억의 영화음악을 화려한 리듬과 강렬하고 애잔한 선율을 가진 집시음악으로 선보인다.

- 연주/박주원(기타), 김경빈(세컨드기타), 김유성(베이스), 정승(퍼커션)

Die Cellisten 8

일 시 | 5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6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유예슬기획 010-9025-2012
...



서울신포니에타 초빙수석, 대구울림챔버 리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리더로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를 주축으로 부산의 첼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첼리스트 김기량(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무늬(진주시립교향악단 단원), 배성아(장원시립교향악단 단원), 신정성(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민지(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오현진(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조혜리(한국CMAK음악인협회 화원)로 구성된 Die Cellisten 8(첼리스트 8)의 무대. 지난해 12월 부산 최초로 8명의 첼리스트로 창단되어 화제가 된 Die Cellisten 8은 8명의 첼리스트가 만드는 풍부한 선율로 Die Cellisten 8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정수오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11일 박미은, 원영아 피아노 듀엣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피아니스트 박미은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트로빙엔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주회 및 실내악, 음악제 등 다수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원영아의 듀오무대로 마련되는 가족음악회 '피터와 늑대'.
• 해설/양윤주(동학구연가, 시낭송가)
18일 The Mu:Ze Trio의 체코로의 여행
with 바리톤 채범석
부산예고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강고은, 첼리스트 문숙연, 피아니스트 박은정으로 결성된 The Mu:Ze Trio의 무대.
효원 성악회 회장, 부산남성성악가양상블, 이태리

음악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채범석과 함께 작곡가 스메타나, 요제프 슈크, 드보르작, 마르티누 등 체코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체코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스메타나/Album Leaves 작품 2 제2번 '상송'
요제프 슈크/트리오 다장조 작품 2J
드보르작/4 Lieder 작품 82
마르티누/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제1번
드보르작/집시의 노래 작품 55

25일 (사)더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국내외 교향악단에서 실력을 쌓아 온 수석급 솔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더 솔로이스츠'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4중주 제1번 K.285
베버/클라리넷5중주 작품 34
리게티/목관5중주를 위한 여섯개의 바가텔

모차르트/5중주 내림마자오 K.452

- 음악감독/정성흠(피아노)
- 관악/김동욱(플루트), 최진봉(바순), 이연숙(오보에), 최우선(클라리넷), 키야마 아키코(호른)
- 현악/김준영, 서은아, 조무중(바이올린), 정준수, 오현진(첼로), 김은진, 김민경(비올라)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 천원의 행복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균일 1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12월 목관이 전하는 사랑의 세레나데
지난 2005년 결성된 후 목관앙상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해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무대.

19일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우리詩 우리歌曲'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 강사들로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한국가곡을 알려온 한국가곡연구회의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25일 문화가 있는 날 'The Blossom' 다섯 번째 이야기
부산 출신의 미국 유태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부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단체로 호평받은 The Blossom의 무대.

- 피아노/심정자
- 플루트/김윤희
- 바이올린/정다희, 안은지
- 비올라/김가민
- 첼로/김나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특별연주회 2016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일 시 | 5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5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2016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5월 12일 금정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한국가곡&가요'
5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하는 행복한 한국가곡/남촌, 보리밭, 고향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오페라 이중창/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틀리브 곡)

김현식 가요의 남성합창/사랑했어요, 골목길
김광석 곡에 의한 한국가요 합창/거리에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른 즈음에
행복한 5월 아름다운 한국가요합창/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어머니와 고동어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이중창/소프라노 이정희, 메조소프라노 김윤희

부산시립교향악단 '아리아와 서곡'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5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프로그램]

벨리니/오페라 '카롤렛타와 몬테규가' 서곡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서'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일어나라 태양이여'
차이코프스키/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번스타인/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 프로코피에프/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의 춤'
프로코피에프/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 '티발트의 죽음'

- 지휘/장윤성(공포프라이밀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 지휘자)
- 협연/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박신혜

제52회 을숙도명품콘서트 Dvořák

일 시 | 5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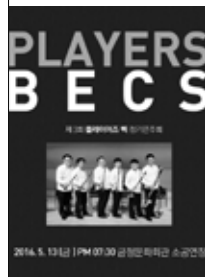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16년 5월 무대. 지휘자 이효상이 이끄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준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박규동의 '교향적 그림 오록도'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드보르작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이효상
- 협연/김준영(바이올린)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플레이어스 벅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플레이어스 벅 010-8007-8087



지난 2014년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경남, 경북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들로 결성된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리스트 단체인 '플레이어스 벅'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bec'은 프랑스어로 클라리넷의 마우스피를 뜻하는 말로,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 '플레이어스 벅(players beks)'은 그동안 독주,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아름답고 화려한 클라리넷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아키노 로시니, 조지 거슈윈의 클라리넷 솔로곡을 비롯해 클라리넷 듀오, 콰르텟, 콰이어 등 다양한 편성의 클라리넷 연주곡과 Bb 클라리넷과 Eb 클라리넷, 알토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등 다양한 클라리넷 악기군이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리즈아트플랜 국제기획전 한·일 문화교류전 2016 '가향(佳香)'

일 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2:00 밀양 법흥사
 15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이현미 010-8343-8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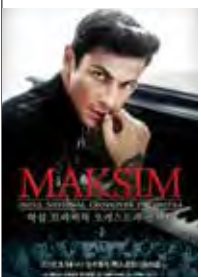


춤작가 이현미가 대표로 있는 리즈아트플랜이 한·일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인 윤경선, 한영길, 윤해승과 일본의 교토연주자 Yumico Reime, Maki Narita의 연주로, 한국과 일본의 전통악기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특히 한국의 산조 음악을 통해 각 나라의 특징적인 선율을 사계절의 의미에 담아 춤이 있는 무대로 선사한다.

- 기획/이현미
- 연출/홍기태
- 대본/노금선
- 진행/김신희
- 출연/윤경선(가야금), 한영길(대금), 윤해승(해금), 이미란(가야금산조춤), 손영일(대금산조춤), 홍기태, 이윤혜(해금산조춤), Yumico Reime, Maki Narita(고토)

막심 므라비차 오케스트라 콘서트

일 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B석 7만 7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신이 내린 손가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니콜라이 루빈스타인 피아노콩쿠르와 파리 폰트와즈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후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해 온 막심 므라비차는 격정적인 피아노 연주와 다이내믹한 속주, 화려한 외모 등으로 한국팬들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13년째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팬들과 끊임없이 교류해오고 있다. 특히 거침없고 완벽한 속주의 막심 므라비차와 서울 내셔널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협연이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이 넘나드는 매혹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3회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일 시 | 5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미정 010-2962-0459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파르마 'Orfeo' 아카데미, 베르첼리 'G. B. Viotti' 시립아카데미, 'E. Fogliatti' 시립아카데미, 파비아 'T. Gobbi'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이태리 'Erba' 국제성악콩쿠르 1위 및 Voce Migliore(최고의 목소리)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김미정은 한국과 이태리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루마니아 국립방송교향악단, 불가리아 플로프디프 국립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 해금/김나영
- 플루트/성기업
- 합창/부산대학교 합창단(지휘/박지호)

제5회 장재혁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 5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Superior과정, 파리국립고등음악원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장재혁은 부산음악콩쿠르 우승, 동아콩쿠르 입상, 선정콩쿠르 1위, 한국클라리넷협회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재혁은 프랑스 시메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인제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수아트홀 기획연주

남성양상블 헤븐싱어즈 초청
한국 가곡과 동요전

일 시 | 5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지난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의 기획 무대. 그동안 연주자들의 재능기부로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펼쳐온 수아트홀은 이번 무대에서 남성양상블 헤븐싱어즈를 초청,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과 동요를 들려준다.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음악적 깊이와 해석을 같이하는 정상급 남성성악가들로 결성된 헤븐싱어즈는 그동안 오페라, 가곡, 칸초네, 뮤지컬, 7080, POP & K-POP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모든 관객을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 뱃노래, 남촌, 섬집아기, 청산에 살리라, 울봉도 예이교 보면, 신아리랑, 어머니, 과수원길 등
- 찬조출연/소프라노 왕기현
- 피아노/하영화
- 연주/수양상블바이올린 금성빈, 첼로 이지수, 피아노 고영주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22-24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일 시 | 5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그동안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해온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5월 무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함부르크 시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강사로 있는 피아니스트 강인경, 창원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브람스 시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앙상블 아리(A-ri)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황승희, 브람스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영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유진이 출연,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진행/고민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클레타 현악사중주

일 시 | 5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탁서연과 비올리스트 신지현, 첼리스트 김유미로 구성된 클레타 현악4중주의 무대로 꾸며지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5월 무대. 클레타 현악사중주단은 'Classic never dies! 클래식은 죽지 않는다'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전지음과 화려한 조영에 지쳐 있는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 음악으로 되돌리고자 모인 젊은 앙상블로, 그동안 5차례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테마의 기획연주회,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한 조영에 지쳐 있는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 음악으로 되돌리고자 모인 젊은 앙상블로, 그동안 5차례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테마의 기획연주회,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1번 KV.136
- 베토벤/현악사중주 작품 18 제4번

다이나믹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 사무국장 오영록 010-2532-5062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랑과 감동을 나누는 아마추어 현악오케스트라인 다이나믹 오케스트라의 무대.
지난 2015년 3월 창단된 후 매주 토요일 정기합주회를 실력을 쌓아온 다이나믹 오케스트라는 그 해 11월 창단연주회를 통해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이자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멤버, 다이나믹 오케스트라 상임지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광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적 열정이 묻어나는 다양한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이광식



제6회 부산첼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2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첼로오케스트라 010-3830-0802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첼로 오케스트라인 부산첼로오케스트라의 6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0년 창단한 부산첼로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연주회, 음악봉사 활동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지휘/김태훈
- 피아노/김은정
- 연주/김소이, 양희주, 김하은, 김지현, 양지연, 문예원, 송미경, 사공유경, 이현우, 오재익, 이재은, 주진영, 김경희, 김장국, 김은주, 이지윤, 정진희, 최은영, 김미화, 주서영, 손세진, 임여원



장정림의 플루트 첫 독주회

일 시 | 5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장극태 010-3582-5189



경성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플루티스트 장정림의 첫 번째 독주회. 메소드필하모니 주회 전국 학생콩쿠르 관악부 대상,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주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대상 없는 전제 최우수상 등 각종 콩쿠르 입상으로 어려서 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장정림은 초등학교 시절 부산관현악단과의 협연을 비롯해 스트링스 챔버오케스트라, 부산소년소녀현악합주단, 메소드필오케스트라, 부산플루트앙상블,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사관 초청으로 UKO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에 서는 등 전문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갈고 닦아왔다.

장정림은 현재 UKO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플루트/박찬엽, 장극태
- 피아노/이주연

숨니움앙상블 정기연주회 가브리엘 포레의 판타지 콘서트

일 시 | 5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숨니움앙상블 010-2881-5921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양한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는 숨니움앙상블의 세 번째 무대 '가브리엘 포레의 판타지 콘서트'. 연주자들과 관객들간의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숨니움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레의 작품을 통해 피아노와 두 대의 비올라가 선사하는 색다른 음색과 포레의 서정적이면서도 낭만 넘치는 가곡, 그리고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의 3중주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혜경
- 비올라/김가민, 윤솔샘
- 소프라노/김나정
- 바리톤/이규원
- 클라리넷/유지훈
- 첼로/김나래

국립부산국악원 문화가 있는 날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茶談)'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1: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로 마련하는 '다담(茶談)' 5월 무대. 향긋한 차 한잔을 마시며 명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국악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의학박사 이원철을 초대, '우리 가족 건강이야기'로 관객과 만난다. 경희대학교 한의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의료원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원철 박사는 이번 무대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만큼이나 중요한 내 몸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 [프로그램]**
천년만세, 판소리 '수궁가' 중 '약성가', 남창가곡 계면 평가 '반남야', 동래학춤
• 진행/이안(방송인)

멜로매니아 가족음악회 테너 원요한 독창회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원요한 010-9554-0115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545-0115



프로 못지않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제된 감정 속에 폭발적인 표현을 표출하는 풍부한 레퍼토리와 실력을 겸비한 테너 원요한 독창회.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전문 솔리스트 모임인 멜로매니아와 부산가곡사랑회를 통해 다양한 무대에 서온 원요한은 아마빌레색스폰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색소폰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원요한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소양과 열정을 담아 평소 즐겨부르는 애창가곡과 테너로서 사랑받는 주옥같은 아리아, 성가곡, 민요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최성욱/당신을 위해 내가 정상홍/새야새야 파랑새야
김용연/사랑의 테마 등 수곡
• 특별출연/멜로매니아 • 피아노/곽윤희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9회 국악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4-1232

우리가락의 맥을 잇고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국악 전공 재학생들이 마련하는 국악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정악합주 '취타', 가야금독주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세악합주 '천년만세', 찬가(파랑개(정동희 곡) 등
• 해설/최희연 • 국악지휘/권선택
• 연주/집박 이동민(2학년), 가야금 정효성, 이은진(3회 졸업), 이지혜, 김민주(3학년), 거문고 박요섭(3학년), 대금 오재은(3학년), 피리 김민정(3학년), 해금 석연수(3학년), 장구 장윤지(3학년)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6회 프롬나드 콘서트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챔버스퀘어홀
입장료 | 전석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피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5월 무대.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양경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의 맞아 '사랑과 감사(Love & Appreciation)'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정승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정승찬 010-2557-6643



인터내셔널 플루트아이스 음악감독, 채움(Fill) 앙상블&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정승찬 독주회. 정승찬은 고신대학교와 오스트리아 Haydn Musik Konservatorium, Wien Musik Konservatorium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주자로 활동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바흐/플루트소나타 제3번 BWV 1032
드뷔시/아라베스크 제1번
드뷔시/달빛
도플러/두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안단테와 론도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등
• 피아노/최여진 • 플루트/한유주
• 베이스/정하해 • 클래식기타/고충진

제21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금상·은상 입상자 신예음악회

일 시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연주홀, 녹음홀인 글로벌아트홀이 차세대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하는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입상자들을 위한 신예음악회.
경연에 참가했던 연주자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지난 4월 최우수입상자들의 축하무대에 이어 금상, 은상 입상자들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날 실황무대는 고음질, 고화질로 녹음, 녹화되어 디지털앨범으로 발매된다.



2016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재즈, 탱고 그리고 왈츠

일 시 | 5월 29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프레멘토 010-4554-7777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매년 봄 마련하는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2016년 무대. 올해로 7번째를 맞는 2016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35인조 플루트오케스트라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재즈, 탱고, 왈츠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소스타코비치/재즈왈츠
- 영화 OST/여인의 향기, 오버 더 레인보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캐리비안의 해적
- 보르딘/짚가락 행진곡 변주곡
-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등 수곡
- 음악감독 및 지휘/김인호
- 피아노/김현경 • 첼로/이지수
- 드럼/박아론
- 특별출연/무대에서 놀자 무용팀, 라온 오카리나 앙상블, 아라 청소년오케스트라

트리오 피아체 리사이틀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며

일 시 | 5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오현진으로 결성된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독일 에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The Soloists 멤버, Ensemble Cosmopolitan, Camerata Busan 악장으로, 첼리스트 오현진은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The Soloists, Art-O 멤버로, 피아니스트 박정희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론지음악원, 보스턴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Sento Chamber Society, Sorina Piano Duo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 멘델스존/피아노트리오 제2번
- 차이코프스키/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하며

제5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베를린 필하모닉 클라리넷 수석 안드레아스 오펜잠머

일 시 | 6월 1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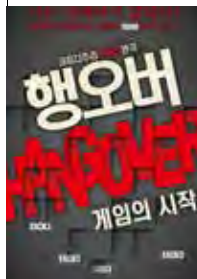
탁월한 음색으로 관객과 평론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스트리아의 클라리넷리스트 안드레아스 오펜잠머 초청 무대로 마련되는 제5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현재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클라리넷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오펜잠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0살 때 빈 음악공예예술대학교에서 첼로를 공부한 후 2003년 클라리넷으로 전공을 바꾸어 요한 힌들러를 사사했다.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오펜잠머는 하버드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9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베를린 도이치심포니 수석주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 피아노/호세 가야르도

Play 연극

연극 '행오버'

일 시 | 3월 10일(목)~5월 15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조은극장 1588-2757



철회는 부인의 생일과 결혼 1주년 이벤트를 펼치기 위해 부인을 호텔 506호로 납치한다. 부인을 납치한 호텔 방 506호, 호텔로 휴식을 취하러 온 게이바 사장의 방 508호, 자살하기 위해 호텔을 찾은 스트립댄서의 방 509호, 이들 모두가 술에서 깨어보니 싸늘한 부인의 시체가 있는 507호, 숙취(행오버 hangover)로 기억을 잃어버린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데...
연극 '행오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반전 속에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진다.

- 작, 연출/정구진

연극 '스캔들'

일 시 | 3월 17일(목)~6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만 18세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보잉보잉'의 작가로도 유명한 프랑스 코믹극의 대가 마르크 까물레티의 작품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각색한 성인들을 위한 화끈한 섹시 코미디극 '스캔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이지만 남편의 친구, 미모의 모델과 각각 바람을 피우는 아내 고은과 남편 우진, 그리고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대학교수 주일과 우진의 섹시한 모델 애인 제시카, 여기에 우연히 여기게 된 만능 요리사 셰프김, 이 다섯 남녀의 서로를 속고 속이는 발쾌한 해프닝이 19금 연극에 맞는 아찔한 대사와 거침없는 연기 속에 펼쳐진다.

- 원작/마르크 까물레티
- 각색/박은혜
- 연출/장우진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 4월 1일(금)~5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긴박한 전개와 애드립조차 허용치 않는 잘 짜인 연출,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그리고 놀랄만한 반전으로 지난 1998년 초연 이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극작가 레이 쿠니의 연극 '라이어' 시리즈 3탄 '라이어 튀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 날, 택시를 타고 가던 영호는 300억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과 뒤바꿔 들고온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히고 잠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다.

한결아트홀 기획공연 이윤주 연극전

일 시 | 4월 5일(화)~6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5천원, 중고생 2만원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부산이 낳은 명배우이자 연출가였던 **이윤주**를 추억하는 이윤주 연극전. 옛 가마골소극장 흥행 1위를 기록한 낭만 뮤지컬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허녀'를 시작으로 '울고 있는 저 여자', '안데르센', '서툰 사람들', '방바닥 굶는 남자' 등 이윤주의 대표작 다섯 편을 만날 수 있다.

5월 5일(목)~15일(일) 안데르센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쓴 '어른을 위한 동화&자서전'을 각색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윤택의 첫 번째 가족극 '안데르센'. 27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가 이윤택이 선별한 다섯 편의 동화

가 유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지는 '안데르센'은 2014년 국립극단에서 초연된 이후 2014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폐막작, 2015년 아스테지 어린이 겨울축제 개막작으로도 초청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본/이윤택 •연출/이윤주
•재연 연출/김하영
•음악/황승경, 이상우 •안무/박소연
•출연/박인화, 허가예, 이순현, 강호석, 김아라나, 권혜원, 김승경, 박종현, 박현승 외

5월 19일(목)~29일(일) 서툰 사람들

집주인과 도둑으로 만난 여섯프고도 서툰 주인공들의 하룻밤 유쾌한 소동을 그린 가마골소극장의 대표 흥행 레퍼토리 '서툰 사람들'.
•작/장진 •연출/이윤주
•재연 연출/변진호
•출연/홍선주, 변진호, 서승현, 신재훈, 한상민, 염순식, 김지현, 차민협

6월 2일(목)~12일(일) 방바닥 굶는 남자

2010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신인연출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한 작가 김지훈과 연출가 이윤주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작품으로, 지금 이듯 한국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주변부 인생으로 밀려나버린 4명의 남자들이 벌이는 진지한 놀이극 '방바닥 굶는 남자'.
•작/김지훈 •연출/이윤주
•재연 연출/이윤택
•출연/홍민수, 김철영, 조승희, 신인철, 최민혁, 이보라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 4월 15일(금)~5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에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연애 100일 커플에서 술술 권태기에 접어들며 사사건건 부딪히는 1,000일 커플, 연인끼리 보다는 이제는 가족 같은 10년 커플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이번 작품은 지난 1990년대 마로니에공원을 배경으로 그 때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작/이민혁 •연출/이규인

뮤지컬 '맛의 기억'

일 시 | 4월 15일(금)~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구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B(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기억을 잃어버리고 바닷가를 떠돌고 있던 수정 앞에 수수께끼 같은 남자 대현이 나타나고, 맛으로 기억을 찾기위해 부산의 유명 먹거리를 찾아다니던 수정은 대현에게 집밥으로 기억을 찾게 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하는데... 수정은 과연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미각, 그 '맛의 기억'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사랑, 그리고 잊고 살아왔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전해줄 창작뮤지컬 '맛의 기억'.
•작/이민혁 •연출/이규인
•음악감독/박윤희

연극 '쉬어매드니스'

일 시 | 4월 21일(목)~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조은극장 1588-2757



정신없고 산만한 미용실 '쉬어매드니스' 위층에 살고있던 왕년에 잘 나가던 유명 피아니스트가 살해된다. 손님으로 가장해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은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은 목격자이자 배심원이 되어 용의자들의 행적을 캐문는다.
 저마다 완벽하고 치밀한 알리바이를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는 4명의 인물들, 범인은 바로 여기, 미용실 안에 있다. 과연 당신이 지목할 범인은 누구인가?
 연극 '쉬어매드니스'는 범인을 잡으려는 관객들과 숨겨려는 배우들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회 다른 관객들의 증언에 따라 사건이 재연되면서 매회 다른 결말을 선보인다.
•원작/파울 포터너 •연출/서성중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일 시 | 5월 6일(금)~15일(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광안리 야외무대, 나다소극장, 용천지랄 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Go World Festival, Dynamic Fringe, 축하공연 균일 1만 5천원)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2016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 극단 마음같이 '우리는 이렇게...'

6일(금) 오후 4:00, 7일(토) 오후 7:00 나다소극장

- ㈜트라이앵글연구소 '자화상' 6일(금) 오후 7:00, 7일(토) 오후 4:00 나다소극장
- 창작집단 초크 24 '6월 26일' 9일(월) 오후 4:00, 10일(화) 오후 7:00 나다소극장
- 달나라 동백꽃 '작은 문장' 9일(월) 오후 7:00, 10일(화) 오후 4:00 나다소극장

- 극단 사니너머 '돌아온 박침지' 12일(목) 오후 4:00, 13일(금) 오후 7:00 나다소극장
- 극단 노마드 '백목원-유전유죄, 무전무죄' 12일(목) 오후 7:00, 13일(금) 오후 4:00 나다소극장

Dynamic Fringe

- 극단 리셋 '광안리 즉흥극' 7일(토)~8일(일) 오후 4:00, 9일(월)~10일(화) 오후 8:00 BIPAF ZONE 메인스테이지
- 극단 보물 '목각인형 콘서트' 7일(수)~8일(목) 오후 3:00, 5:00, 9일(월)~10일(화) 오후 8:00 하늘바람소극장
- 윈즈 마살아초극 '닌자' 7일(토)~8일(일) 오후 6:00 BIPAF ZONE 메인스테이지
- 연극 아로새김 '한넬레' 7일(토)~8일(일) 오후 5:00, 12일(목) 오후 7:00 BIPAF ZONE 사이드 스테이지
- 베타프로젝트 '불현 듯, 부아가 치밀 때가 있다' 7일(토) 오후 5:30, 8일(일) 오후 8:30 용천지랄소극장
- 극단 무심천 '꼬메디아 상상병 환자' 7일(토) 오후 8:30, 8일(일) 오후 5:30 용천지랄소극장
- 극단 끼리 '욕하고 싶은 날' 8일(일) 오후 8:00, 9일(월) 오후 6:00 BIPAF ZONE 메인스테이지
- 극단 꿀 '좀비가 된 사람들' 9일(월)~12일(목)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연극 놀이터 '천사대리운전' 9일(월)~11일(수) 오후 5:00 BIPAF ZONE 사이드 스테이지

- 머리다리 '설탕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연구' 10일(화) 오후 5:30, 11일(수) 오후 8:30 용천지랄소극장
- 극악무도 '모던레퀴엠 - 씨김' 10일(화) 오후 8:30, 11일(수) 오후 5:30 용천지랄소극장
- 안녕 팩토리 '안녕 파이어맨' 11일(수)~13일(금) 오후 8:00, 14일(토)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 극단 사랑마를 그리고 사마귀와 배짱이...비상! '행복해, 장유씨?' 11일(수)~13일(금) 오후 8:00, 14일(토)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 라온 현대무용단 '디스 라이크' 11일(수) 오후 6:00 BIPAF ZONE 메인스테이지
- 노릇바치 '동래야류' 11일(수)~12일(목) 오후 6:00 BIPAF ZONE 메인스테이지
- 극단 본 '생의 가늠' 11일(수)~12일(목) 오후 8:00, 13일(금) 오후 6:00 BIPAF ZONE 메인스테이지
- 밴드 이끼 12일(목) 오후 5:00, 13일(금) 오후 7:00 BIPAF ZONE 사이드 스테이지
- 끼리 프로젝트 & 윈즈 '몽키댄스' 13일(금) 오후 5:30, 14일(토) 오후 8:30 용천지랄소극장
- 퍼포머그룹 파란달 'ROMEO - THE 씨김' 13일(금) 오후 8:30, 14일(토) 오후 5:30 용천지랄소극장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일 시 | 5월 13일 금요일 오후 8:00, 1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5일 일요일 오후 6: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3인 혹은 5인 예매시 10% 할인)

문의 | (주)아이스타미디어 1666-4146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지난 2009년 초연 이후 전 회 매진이라는 신기록과 함께 '친정엄마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미국 LA, 뉴욕 등 해외 투어를 포함해 전국 100회 이상 무대에 올려져

많은 사랑을 받은 이번 작품은 딸 때문에 산다는 엄마와 엄마 때문에 못 산다는 딸의 가슴 뜨거운 감동의 무대로, 대사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진정성 있는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배우 강부자와 철없는 딸들의 목소리를 섬세한 감성으로 대변하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 전미선이 엄마와 딸로 다시 출연해 객석을 울리는 애잔하고 가슴 찡한 열연을 펼친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동춘서커스

일 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1925년 일본서커스단 직원이었던 동춘 박동수에 의해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서커스단이자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인 역사와 전통의 동춘서커스 초청 공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춘서커스단은 이번 무대에서 번쩍, 서커스 발레, 공중 수직 줄타기, 공중실크, 불방망이 저글링 등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수준높은 서커스 공연을 통해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재미를 선사한다.



2016 을숙도 연극열전

일 시 | 5월 15일(일)~6월 8일(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을숙도문화회관이 서부산권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마련해 온 '을숙도 연극열전' 2016년 무대.

'을숙도 연극열전'은 다양한 연령층의 부산시민들이 직접 참가해 만들어가는 무대로, 올해는 부산대학교 극예술연구회, 행복누리공연단, 극단 오로라, 극단 PLAY, 시민극단 배우로 배우다, 시민극단 씬, 청소년극단 울림, 청소년극단 야호 등 총 8개의 아마추어 단체와 부산시립극단이 참가한다.

일정

- 5월 15일(일) 부산대학교 극예술 연구회 '나무는 서서 죽는다'
- 5월 21일(토) 행복누리공연단 '어머니의 유산'
- 5월 22일(일) 극단 오로라 '동녘 붉은 해'
- 5월 26일(목)~27일(금) 극단 PLAY '버스정류장'
- 5월 28일(토) 시민극단 배우로 배우다 '아름다운 시인'
- 5월 29일(일) 시민극단 씬 '비상구는 있다'
- 6월 4일(토) 청소년 극단 울림 '오월의 신부'
- 6월 5일(일) 청소년 극단 야호 '뮤지컬 철부지들'
- 6월 8일(수) 부산시립극단 찾아가는 공연 '미스터 웅고집'

2016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일 시 | 5월 16일(월)~22일(일) 동래문화회관 일원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야외공연은 자율관람료로 진행)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극단 맥 550-6620



거리공연예술이 드문 부산에 새로운 형태의 공연축제를 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마련해온 2016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청취 박준영 사진전 '11.13' 9일(월)~22일(일) 전시실 프랑스 테러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사진전.

프랑스 아프포델극장 '고약한 놈들'
16일(월) 오후 8:00 대극장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코메디의 한 형태로 독특한 말투와 몸짓의 기교로 이루어진 '코메디 델라르테'의 전통에 합함무용, 휴먼 비트박스를 융합한 에너지 넘치는 무대.

한국 나리밴드 'F4-가족, 꽃, 영원함, 즐거움'
17일(화) 오후 8:00 소극장
해금과 첼로, 바이올린과 건반과 퍼커션, 색소폰이

어우러지는 나리밴드의 무대.
● 연주/나리(해금), 우리라(첼로), 조수현(색소폰), 조우령(건반), 김진훈(퍼커션), 최민호(색소폰)

한국 극단 맥 '바나리'
17일(화) 오후 9:00 야외무대
2013년, 2014년 프랑스 아비뇽축제 OFF 진출작이자 2016 영국 에딘버러축제 진출작인 극단 맥 '바나리'. 어머니로 상징되는 인간의 고갈된 인생살이를 우리의 전통 연희기법으로 풀어낸다.

프랑스 극단 에스빠스 호조 '안티고네 크래용'
18일(수) 오후 8:00 대극장
안티고네가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보내는 15일간의 마지막 생애를 줄거리로, 잔인한 독재주의자 크래용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해야 하는 안니코네를 통해 인간에 의해 인간을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광기와 절대권력에의 집착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극단 맥 '꼭두'
19일(목) 오후 8:00 야외무대
2015년, 2016년 프랑스 아비뇽축제 OFF 진출작으로, 저승사자와 우리의 전통신앙인 중가신신앙을 축으로 한국인의 내세관, 죽음관을 전통연희로 풀어낸 극단 맥 '꼭두'.

프랑스 발공극장 '목이 마르다'
20일(금) 오후 8:00 대극장
프랑스 발공극장과 극단 맥의 국제교류 프로젝트로, 하이든의 현악4중주 '십자가의 일곱가지 말씀'과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토대로 세속에 대한 고찰과 인간이 받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연주/클래식 라디오
한국 W.무용단 'Bridge'
21일(토) 오후 5:00 야외무대
타 장르와의 벽을 허물고 대중성을 지닌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W.무용단의 첫 번째 정기공연.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를 인식하고 발견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창작춤 'Bridge'를 선보인다.

한국 극단 시선 '미롱'
22일(일) 오후 3:00 대극장
궁중무용 '정재(呈才)'를 연극적 양식으로 풀어낸 극단 시선 '미롱'. 조선 순조때 천재적인 작곡가이자 무용수였던 전악 김창하가 창작한 '춘앵전'을 모티브로, 춘앵전을 비롯해 검무, 학무 등 다양한 궁중무용과 사당패의 풍물, 살판, 덧뵈기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선보인다.

한국 극단 동해누리 '이봐, 김서방'
22일(일) 오후 5:00 대극장
2016년 프랑스 아비뇽축제 OFF 진출작으로, 도깨비를 소재로 한국 전통음악의 음식과 다양한 악기의 음식을 크로스오버해 창작한 한국전통 음악극 '이봐, 김서방'.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일 시 | 5월 20일(금)~7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4만원(5/19일까지 조기예매시 1만 5천원 할인)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난중일기의 찢겨진 페이지에서 착안해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미스터리를 개발한 발상의 코미디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 평범한 인간 이순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영웅을 기다리며'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순신이 자신을 암살 하려던 일본 무사에게 사로잡혀 3일간 동행하는 내용으로, 배고프면 서럽고 열 받으면 욱도 잘하는 인간적인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2008년 창작팩토리 최우수상, 2012년 창작뮤지컬 지원자에 선정된 작품으로, 잡 못드는 이순신의 육두문자 화음이 만들어낸 기발한 뮤지컬 넘버와 한밤중 부르짖는 세레나데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18곡의 뮤지컬 넘버와 파워풀한 안무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댄스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일 시 | 5월 31일(화)~6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30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등을 유쾌하게 배합시켜 무대와 객석이 춤으로 하나되는 난버벌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 준, 선, 빈 등 3인의 탄생, 성장, 사랑의 모든 감정을 언어가 아닌 춤으로 표현한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지난 2004년 10월 초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000회 넘는 공연기간 중 전국문화예술회관 70개 도시 초청공연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한국을 넘어 전 세계 60여개 도시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Concerts 콘서트

2016년 남진 전국투어콘서트

일 시 | 5월 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인순이 부산 콘서트

일 시 | 5월 15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A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제이엔컴퍼니 612-4555

추억과 함께하는 조영남의 봄소풍

일 시 | 5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Event 행사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낭만DJ 최성원이 함께하는
낭만팝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30 음악감상실 Sara
문 의 | 최성원 010-9462-0037

2016 금정 어린이세상

일 시 | 5월 4일(수)-5일(목)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전시실, 야외마당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5665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금정문화회관이 어린이를 위해 마련한 수준높은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2016 금정 어린이 세상', '왕~왕 신나는 1일 문화놀이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에듀콘서트 '딱따구리 음악회'를 비롯 페이퍼아트 뮤지컬 '종이아빠', 뮤지컬 '아채친구 아미', 키즈콘서트 '마음튼튼 놀이터', 오감감성놀이터 '콩이랑 아이랑' 등 공연, 전시, 체험, 놀이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감감성놀이터 '콩이랑 아이랑'
3일(수)-22일(일) 전시실
콩을 소재로 한 친환경 교육체험 놀이터.

키즈콘서트 with 부산네오파모닉 오케스트라 '마음튼튼 놀이터II'
4일(수) 오전 10:10, 11:20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부산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의 신나는 클래식 연주로 어린이들의 행복한 상상력을 더해주는 키즈콘서트 '마음튼튼 놀이터II'.

키즈 테라피 에듀 콘서트 '딱따구리 음악회'
5일(목) 오전 11:00, 오후 2:00 대공연장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차임벨 등 신나는 타악기 연주와 동물 친구들의 퍼포먼스로 어린이들의 상상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키즈 테라피 에듀 콘서트 '딱따구리 음악회'.

•입장료/어린이 1만 5천원, 어른 1만원
페이퍼아트 뮤지컬 '종이아빠'
5일(목) 오전 12:30, 오후 2:30 소공연장
기발한 상상력과 스텔 넘치는 모험으로 부녀간의 끈끈한 사랑을 담은 이지는 작가의 동명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종이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서툰 아빠와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신나는 놀이와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종이로 만든 각종 소품들과 그림자극 및 인형극을 활용한 무대장치, 블랙라이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객들을 유쾌한 상상여행의 세계로 이끈다.

•입장료/어린이 1만 5천원, 어른 1만원

HEALING CLASSICAL MUSIC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교양강의실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해설/김옥균(전 MBC FM 목요음악감상회 PD, 클래식음악해설가)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6강
바로크 음악

일 시 | 5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시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이번 강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왕정으로 부터 계몽주의로 이행,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신사적으로는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적인 사조의 흐름을 배경삼아 탄생되고 발전된 바로크음악에 대해 알아본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특색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5월 무대.
1부/다니엘 호프, 할리우드 사운드, 쿠르트 바일, 콘골드, 로저 미클로시, 2015
에스빈온 스펀슨 추모공연, 재즈발티카 2011
2부/팻 메스니 더 유니티 세션 2015, 팻 메스니, 크리스 포터
캐롤 킹, 케네디 센터 아너스 2015, 뮤직케어스 2015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2016 제30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일 시 | 5월 16일(월)-29일(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busan.or.kr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매년 5월 마련하는 2016 부산청소년연극제.

|주요 일정

-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7일(토) 오후 3:00(예선), 21일(토) 오후 3:00(본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청소년연극제
16일(월)-27일(금) 16:00, 19: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학생사진공모전
20일(목)-26일(목) 부산시민회관 2층 전시실
- 부산청소년무용예술제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청소년 차예절 겨루기 대회
21일(토) 오후 4: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학생그림공모전
21일(토)-26일(목)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22일(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연습실, 공연장
23일(월)-28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제30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28일(토) 오전 8:00 부산시민회관 대·소극장
- 청소년음악제
28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청소년 꽃다발만들기대회 및 체험교실
28일(토) 오후 1:00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야외광장
- 청소년 시낭송대회
28일(토) 오후 1: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청소년, 영화로 소통하다
29일(일)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16)
상송(Chanson)

일 시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4:3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정옥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월드뮤직 해설가이자 클래식음악 애호가인 최정옥이 201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제3세계 민속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월드뮤직을 통해 민초들의 삶의 노래와 역사의 생명력을 공유한다.

|프로그램

- 1부 편집영화, 쉘부르의 우산 감상(20분)
- 2부 상송 음악감상 및 해설
- 기획 및 해설/최정옥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가정의 달 詩 낭송회

일 시 | 5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동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안태봉 010-8374-0626

부산시민회관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일 시 |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민회관이 전 KBS한 국방송 라디오 프로듀서로 30여년간 라디오 음악방송을 진행해온 DJ 도병찬과 함께 마련한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도병찬의 뮤직파일'은 DJ 도병찬의 대표적인 라디오 음악방송 프로그램으로, 팝 음악의 숨은 명곡들을 소개하면서 당시 음악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방송국 퇴임 후 개인적으로 소장한 수천장의 LP와 CD로 음악공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도병찬은 이번 무대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날로그 감성을 되새겨볼 수 있는 추억의 뮤직박스를 선사한다. 브런치형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은 매일 한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사전예약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5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금정문화회관 519-5661



우수 공연의 실황영상은 물론이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만나 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생동감 넘치는 고화질의 영상미와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낸 역동적인 화면, 그리고 현장감 넘치는 5.1 채널 입체 사운드 음향으로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의 화려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스크린 콘서트 5월 상영회에서는 지난해 7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초청 연주회 실황영상을 만날 수 있다.

Display 전시

디오라마 월드 작지만 큰 세상, 기차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Open run
KNN 월석아트홀 디오라마전용관
입장료 | 어른 1만 2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 디오라마전용관 1577-7600

장태묵 목인천강展

일 시 | 2월 25일(목)~5월 7일(토)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부산박물관 소장 서화전

일 시 | 3월 29일(화)~5월 29일(일) 부산박물관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46

지난 1978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수집, 소장한 조선시대 및 근대기 주요 서화작품들을 소개하는 부산박물관 2016년 특별기획전 '부산박물관 소장 서화전'.

문진우 개인전 '내 마음속 다큐 한 장'

일 시 | 4월 23일(토)~5월 30일(월)
예술지구_p ADP 1, 2관
문 의 | 예술지구_p 070-4322-3113



가정의 달 특별기획 굴리굴리 프렌즈

일 시 | 4월 28일(목)~5월 29일(일) 롯데갤러리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광복점 678-2610

황토회 초대전

일 시 | 5월 9일(월)~5월 15일(일)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부산시민공원 개장 2주년 기념 전

일 시 | 5월 4일(수)~5월 15일(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벽산홀, 미로갤러리
문 의 | 부산시민공원 850-6018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467-3965



부산시민공원 개장 2주년을 맞아 부산시민공원과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이 마련하는 기념전. 문화예술촌에 자리한 5공방 운영작가와 협력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Park에서 Art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공예(금속·도자·목·섬유) 및 판화 등

140여 명 작가의 작품 5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기간 중 토요일인 5월 7일과 14일에는 부산시민공원이 주최하는 아트마켓 '공원예술시장'이 열리며, 아트마켓이 열리는 문화장터 주변 뽕로로 야외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류제비展 '바람이 시작되는 곳 (The place wind starts)'

일 시 | 5월 24일(화)~6월 24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부산대학교 사진예술연구회 60주년 기념사진전 사진의 재발견_역사, 현실, 그리고 내일을 보다

일 시 | 5월 13일(금)~5월 21일(토)
부산대학교 제2도서관
5월 23일(일)~5월 28일(일)
부산시청 제2,3전시실
문 의 | 조용준 010 5343 5025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부산대학교 사진예술연구회 기념 사진전. 대학 사진동아리의 60년 과거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번 전시는 졸업생 500여명 중 현재 활동하는 작가 150여명의 작품을 엄선, 예술성과 기록성이 가미된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인물, 정물, 풍경사진으로 현 시대의 가치를 재조명해본다.

RECORD



❖ 가브리엘 리프킨트 첼로 소품집 '소품과 민속음악'

가브리엘 리프킨트(첼로), 알렉산드라 러브첸스키(피아노)

▶ 팔방미인 첼리스트 리프킨트가 직접 편곡, 연주, 녹음한 첼로 소품집

1977년 텔아비브 태생의 가브리엘 리프킨트는 현재 젊은 첼리스트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연주자이다. 어렸을 때 주빈 메타와 쥬세페 시노 폴리의 지휘로 협연을 했던 신동이었으며, 피아노와 작곡도 공부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팔방미인으로, 최근에는 '리프킨트 프로덕션'이라는 음반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연주를 음반으로 발매하고 있다. 이 음반 역시 자체 프로덕션에서 발매한 첼로 소품집으로, '소품과 민속음악'이라는 제목과 같이 낭만과 근대의 흥미로운 소품과 지역색이 강한 작품을 담고 있다. 알베니스의 탱고, 프로코피에프의 왈츠, 스크리야빈의 로망스, 크라이슬러의 중국의 북, 멘델스존의 무언가, 글라주노프의 아랍 멜로디 등 잘 알려진 곡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직접 편곡해 기존의 소품집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음악 선물로 가득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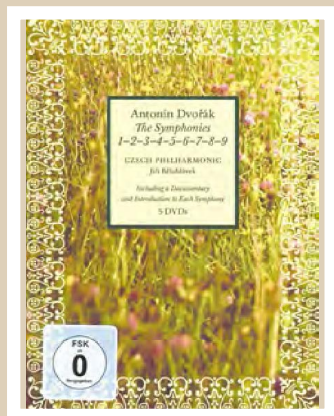
❖ Legendary Artist 나탄 밀스타인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 베토벤 로망스 /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나탄 밀스타인(바이올린),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로린 마젤(지휘)

▶ 20세기 바이올린 연주사에 대한 생생한 증언

1992년에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나탄 밀스타인은 죽기 몇 년 전까지도 왕성한 활동으로 20세기 바이올린 연주사의 산 증인이 되었다. 그가 1959년에서 1964년 사이에 프라하의 봄 음악제에서 연주한 내용은 프라하 방송국에 기록용으로 보관되었고, 이제서야 CD로 처음 발매되었다. 멘델스존과 차이코프스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뿐만 아니라 베토벤의 '로망스 바장조'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에 이르기까지, 이번 음반을 통해 우아하면서도 날렵할 뿐 아니라 독자적인 균형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름난 밀스타인의 진면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세계 최초 CD 발매]



❖ 체코 필하모닉 '드보르작 교향곡 전집'

드보르작 교향곡 1~9번 전집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베크(지휘)

▶ 체코의 정통과 진수를 담은 드보르작 교향곡 전집

2014년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에서 선보인 이르지 벨로홀라베크와 체코 필하모닉의 드보르작 교향곡 전곡 실황영상물이다. 지휘자 벨로홀라베크는 세련되고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드보르작의 당대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어감으로 체코 음악의 '오래된 미래'인 드보르작의 매력을 담아냈다. 이번 영상물에는 벨로홀라베크가 체코의 배우이자 가수이며 작곡가인 에벤(Marek Eben)의 질문을 받아 각 악장의 테마와 주선율을 해석하는 장면이 매 악장마다 삽입되어 있으며, 또한 마지막에 수록된 8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그야말로 이 전집물의 또 다른 매력이다.

BOOK

서화잡지



성해응 지음, 손혜리 · 지금완 옮김 / 휴머니스트 / 260p / 1만5천원

우리 선조들은 그림과 글씨를 어떻게 감상했을까. 오늘날에는 책이나 전문잡지에서 정보도 얻고, 개인은 SNS에서 그 감상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서화전문가가 한 명 있었다. 이 책은 조선 최고의 심미안 성해응의 못 말리는 서화 편력기이다. 성해응은 18세기 조선의 검서관으로 서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귀중본을 포함해 신라시대부터 18세기 조선, 중국, 일본 등 시공간을 넘나들며 서화작품을 섭렵했다. 그리고 뛰어난 서화가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인상 비평을 솔직하고 간결한 문체로 남겼다. 성해응은 서화가에 대한 정보, 시문과 화풍의 특색, 서화와 관련된 일화까지 기록했다. 혹 전해오는 기록 중 자신의 견해와 다르거나 오류가 있으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작품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고 고증했다. 검서관 출신 문인으로서 뛰어난 심미안을 가졌으며, 자신의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던 성해응은 조선의 미술평론가이며 또 서예평론가였다. 이 책에는 그가 엄선한 당대 최고의 서화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18세기 조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향유된 예술의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봉주르 오페라



김성현 지음 / 아트북스 / 364p / 2만원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여인>이 없었다면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빅토르 위고의 희곡 <환락의 왕>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피에르 보마르셰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은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탄생시켰다. 이 책은 오페라의 원작이 된 프랑스 문학작품 스무 편에서 출발해 각 작품이 오페라로 탄생된 과정을 보여준다. 기자로서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 현장을 누비며 이미 5권의 클래식 저서를 출간한 저자는 프랑스 연수 중 프랑스 문학이 오페라로 가득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문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귀국한 뒤에 오페라의 원작이 된 불문학 작품을 모두 원어로 읽으며 문학과 오페라의 만남에 대한 글을 구상했다. '네이버 캐스트'에 연재하는 동안에도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연재를 마친 뒤에 오페라 줄거리와 추천 음반, 추천 영상을 보태고 도판을 손질해 단행본으로 재탄생했다. 첫 구상한 지 4년 만에 세상에 나온 책이다. 원작의 배경과 작가 설명 등 문학의 향기에서 출발해 오페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 김홍도



이재원 지음 / 살림 / 496p / 2만원

조선 최고의 화가, 백성들의 삶을 해학과 풍자로 그려낸 풍속화가로 잘 알려진 단원 김홍도. 그는 평생 정조의 총애를 받은 국왕 직속 화원이었으나, 정작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세 줄의 기록만으로 남아있다. 단원은 어떤 화가였을까. 단원의 풍속화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저자는 그의 풍속화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단순한 그림을 넘어 또 다른 쓰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풍속화는 정조의 명에 의해 그려진, 왕에게 바치는 민생보고서였다. 단원은 왕명을 받아 백성의 삶을 밀착 취재·보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저자는 그래서 이 책의 부제에 '아트 저널리스트'라고 붙였다. 단원은 정조를 위해 그의 눈과 귀 역할을 그림으로 담당했다. 이 책은 단원의 일생과 작품연대를 시대 순으로 배치하고, 정조시대에 활동한 문인 예술가와의 교류로 구성했다. 그러나 단순히 군신간의 의리를 다룬 역사서나 한 인물의 평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신을 알아주며 애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군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바친 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 오늘의 정치 현실과 의리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어주는 책이다.



NEWS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의 날' 개최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선착순 무료관람 시행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의 관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회원의 날'을 개최한다.

올해 '정기회원의 날'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제524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는 7월 8일과 11월 25일(예정) 두차례 진행된다. 이날 정기회원은 예약 선착순 500석에 한해 회원 본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동행인 1명에 한해서는 입장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서 2016년 3월부터 골드회원 가입자에 한해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 2매를 제공하는 등 정기회원들을 위한 서

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공연티켓 할인매수에 따라 골드회원, 블루회원, 그린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관 사무국 607-3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하지희

제25회 고령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우륵대상 수상



가야금의 발상지이자 악성 우륵의 고장인 고령군에서 열린 제25회 고령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하지희가 대통령상인 우륵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고령군과 고령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틀간 고령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열려 전국에서 246개팀 2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사과정을 졸업한 하지희는 그동안 2004 서울 가야금대회 고등부 대상, 제17회 전국 학생음협공쿠르 고등부 1등, 2006 제

16회 전국 김해가야금 경연대회 대학부 우수상, 2007 맹사성 전국 국악경연대회 퓨전국악부문 금상 및 종합대상, 2008 제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은상, 제33회 부산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 기악 일반부 최우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부산문화재단 2013 청년예술가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 오페리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개강



이용숙



이의주

기간 5월 17일~7월 19일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접수 5월 2일~1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3104, 607-3155

연주 소프라노 박수진, 김문희, 바리톤 이규원, 정승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엄남이, 문동환, 최성규, 안재형

반주 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명작 10편을 전문가의 해설과 연주로 만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오페리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2016년 강좌가 5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는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소 좋아하는 명작 오페라에 대해 해설과 연주를 함께 진행하는 고품격 강좌로 지난해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10인의 성악가들이 강사로 참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작품에 대해 강의, 공연을 진행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오페라 해설가 이용숙이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강사로 참가, 10편의 명작 오페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문화대학 강사로 부산을 찾은 바 있는 이의주는 이탈리아 밀라노 아르세날레 극장 아카데미아 연극 및 연기 수학,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아 오페라 분석과 연출 디플로마를 획득했다. 최연소 국립 오페라단 상근연출자로 활동한 이의주는 '라 보엠' '카르멘' '잔니스키기' 연출 및 '투란도트', '라트라비아타', '루치아' 공연으로 서울, 대전, 대구, 김해, 일산, 광양, 목포, 울릉도 전국 투어 등 약 150회 공연을 가졌다. 2009년 비평가 선정 성장 동력 연출가 10인에 선정되기도 한 이의주는 이탈리아 베르디 살레르노 극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연출해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의주는 연출가의 시각으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을 비롯해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푸치니 '라보엠' 등의 명작을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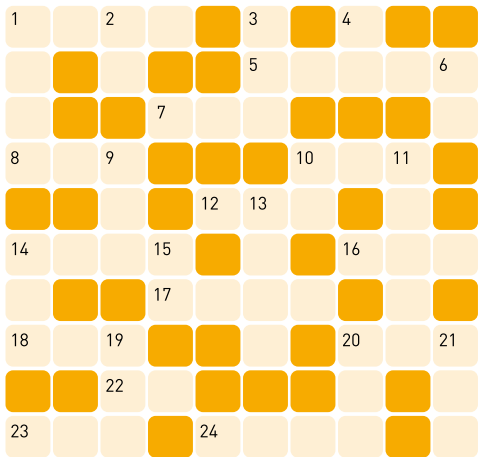
일정

회차	일정	강사	작품명/아리아
1회	5월 17일	이의주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연주 : 피가로 아리아
2회	5월 24일	이용숙	모차르트 '마술피리' -연주 : 파미나 아리아
3회	5월 31일	이의주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연주 : 피가로 아리아
4회	6월 7일	이의주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연주 : 돌카마라 아리아
5회	6월 14일	이의주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연주 : 비올렛타 아리아
6회	6월 21일	이의주	베르디 '리골레토' -연주 : 리골레토, 질다 듀엣
7회	6월 28일	이용숙	바그너 '탄호이저' -연주 : 볼프람 아리아
8회	7월 5일	이의주	베르디 '아이다' -연주 : 아이다 아리아
9회	7월 12일	이용숙	비제 '카르멘' -연주 : 에스카밀로 아리아
10회	7월 19일	이의주	푸치니 '라보엠' -연주 : 무젯타 아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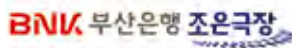
* 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로 처음으로 부산을 찾는 음악평론가, 오페라해설가 이용숙은 이화여대 독문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독문학 및 음악학을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공연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립오페라단 운영자문위원,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한 이용숙은 현재 <연합뉴스> 문화부 오페라전문 객원기자, 국고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지크바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오페라 정기 강좌를 진행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용숙은 국립외교원,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 대학 및 기업 강연, PBC <음악공감 - 이용숙의 행복한 오페라>, KBS, CBS, EBS 라디오 등 방송, 일간지 및 잡지 기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조은극장 | 1588-2757 빈센트 커피 | 051-623-0772
 큰집 | 051-245-3320



옐로인 플라워

빈센트 커피

지난호 정답

부	산	연	극	제	스타	워	즈
활	사	름	히	큰			
장	영	실	바	티	칸		
이	주	고	흐	부			
오	페	라	의	유	경	노	르
네	튜	르	극				
스	아	브	로	드	웨이		
코	스	프레	빈	이	동		
리	후	경	주				
카	프	카	헤	드	워	도	

가로열쇠

- ①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모티브로, 1896년 마리아스 피티파가 대본과 인무를 맡아 러시아 황실발레단의 초연무대로 선보인 전경악의 발레작품. 6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를 통해 부산 관객과 만난다.
- 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실적인 추리를 통해 그 시간에 연루된 인간군상과 그들의 은폐된 허위의식을 고발한 연극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기도 하다.
- ⑦ 5월 6일부터 열리는 2016년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러시아 극단 로만 바크루프 극단이 장 주제의 원작에 등장하는 두 지매 대신 남자배우들을 등장시켜 드라마와 무용, 음악, 움직임이 총합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 ⑧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주로 부모에 기생해 생활하며 돈이 필요한 경우 1~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 ⑩ '간판 위의 순례자' 또는 '간판 위의 구도자', '간판 위의 시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 ⑫ 세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제목인 'ooo'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이 지난 1월 6일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일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 ⑭ 장화 모양의 반도르 오렌 역사와 풍요로운 유물,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보유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 수도는 로마.
- ⑮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인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풍속화가 신윤복의 사실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 ⑰ 영화 '탑건'을 필두로 '레인맨' '어 퓨 굿 맨' 등을 거치면서 데뷔 초기 미남 청춘스타에서 연기력으로 탄탄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다 자신이 직접 제작까지 맡은 '이선 인파서블' 시리즈가 성공하면서 서명제작자로서도 입지를 확고히 한 할리우드 배우.
- ⑱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한층 더 유명한 경북 청송의 저수지. 이 곳에 자생하는 150년 수령의 왕버들과 능수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독특한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 ⑳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 1884년 프랑스 식민지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수도는 하노이.
- ㉒ 백두산 산정에 있는 자연호수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구호이다.
- ㉔ '모기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로 시작되는 시 '사슴'의 저자.
- ㉖ 유럽의 대표적인 첼현악기(撥絃樂器). 16세기 전반에 북이탈리아의 브레시아와 크레모나 등 악기 제작자가 당시 사용되고 있던 현악기를 개조하여 만든 것이다 한다.

세로열쇠

- ① 버림둥이의 대명사 '돈 후안'을 다룬 모차르트 2막 오페라.
- ② J. R. R. 톨킨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반지의 제왕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영화 시리즈
- ③ 지난 2014년故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뮤지컬로, 각종 뮤지컬 시상식을 휩쓸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입증받았다.
- ④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지휘자, 근대음악 발전의 과도기에 속한 인물로 낭만파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작곡가라고도 할 수 있다. 대표작으로 대지의 노래, 부활교향곡,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등이 있다.
- ⑥ 스위스의 알프스지방, 오스트리아의 티롤지방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독특한 찬가와 그 찬가로 부르는 노래.
- ⑨ 부녀자가 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복, 즉옥(卍) 또는 죽관(卍)이라고도 한다.
- ⑩ 위도 약 48°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 내려가지 않는 현상.
- ⑪ 제베카의 육상 단거리 선수로, 남자 100m 세계기록과 남자 200m 세계기록, 그리고 남자 400m 계주 세계기록 보유자이다. 번개같이 빠르다는 뜻의 라이트닝 볼트(Lightning Bolt)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 ⑬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발명가.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채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붙이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결국 태양열에 날개를 불이 밀랍이 녹으면서 에게해에 떨어져 죽었다.
- ⑭ 연희단거리패의 배우이자 연출, 극단 거미굴의 대표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입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연극인. 올해 1주기를 맞아 한결아트홀에서 그를 기리는 연극제가 6월 12일까지 열린다.
- ⑮ 일본의 만화가가 대표작 '오사마가 1952년 연재한 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사랑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만화 캐릭터. 인간의 감수성을 지닌 소년 로봇을 통해 경제적 공평과 좌절에 시달렸던 전후 일본 사회에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⑯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⑳ 독일의 수도.
- ㉒ 1944년 청평담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섬으로, 조선시대 남이 장군의 묘가 있어 이름부처졌다. 1970년대와 80년대 강변기요제가 열렸고 TV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4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주은(금정구 금강로) 손소미(북구 산성로) 이윤호(사하구 낙동대로) 최지은(남구 우암로) 한지현(수영구 수영로)	큰집 식사권	박언주(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신상훈(부산진구 월드컵대로) 이승희(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정명숙(동래구 동래로) 황태조(북구 양달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한경혜(연제구 중앙대로) 박정도(사하구 다대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미진(기장군 차성로) 김유진(서구 구덕로) 박정현(동래구 금샘로) 송영희(동래구 동래로) 정민지(연제구 법원로)
빈센트 더치커피	권유진(동구 진성로) 이윤희(연제구 거제대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81
philharmony
말하모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밴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 **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FLOWERHOUSE

꽃 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The Best Solution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HAWAII HOTEL, BUSAN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 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일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15(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 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대한의원 권길·희주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2016. 4~11
매주 토요일 10:00~13:00
부산시립극단 연습실

연극아! 같이 놀자!



프로그램 연극과 만나기 | 자기소개하기 | 연극 이해하기 | 연극과 친해지기
연극 들여다보기 | 연극과 놀기 | 관찰하기 | 몸으로 표현하기
연극 만들기 | 토론연극 | 대본만들기 | 연기하기 | 연극 체험하기 등

모집대상 1·2·3기 초등학생 40명 / 4·5기 중학생 40명
강사 박종필(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황창기(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옥(부산시립극단 단원)

기수	교육일정	모집대상	접수일정
1기	4월 16일/23일/30일/ 5월 7일	초등학생 40명	4월 1일(금)-14일(목)
2기	5월 21일/28일/ 6월 4일/11일	초등학생 40명	5월 2일(월)-14일(목)
3기	6월 25일/ 7월 2일/9일/16일	초등학생 40명	6월 7일(월)-23일(목)
4기	9월 24일/ 10월 1일/8일/15일	중학생 40명	9월 5일(월)-22일(목)
5기	10월 29일/ 11월 5일/12일/19일	중학생 40명	10월 10일(월)-26일(목)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2016. 4~11
매주 토요일 10:00~1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프로그램 교과서 동요속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엄마와 함께 부르는 추억의 동요
작곡가와와의 만남 :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
'어린 왕자에게'의 작곡가 조경찬

모집대상 초등 3-6학년 50명, 학부모
강사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이영옥, 노금선, 김양자
한수성(작곡가), 조경찬(작곡가), 김효선(동화연구원 강사), 김태연(북아트 강사)

기수	교육일정	접수일정
1기	4월 16일/23일/30일/ 5월 7일	4월 1일(금)-14일(목)
2기	5월 21일/28일/ 6월 4일/11일	5월 2일(월)-14일(목)
3기	6월 25일/ 7월 2일/9일/16일	6월 7일(월)-23일(목)
4기	9월 24일/ 10월 1일/8일/15일	9월 5일(월)-22일(목)
5기	10월 29일/ 11월 5일/12일/19일	10월 10일(월)-26일(목)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교육기간. 4월 - 11월(1기당 4회 교육, 총 5기 운영), 매주 토요일 10:00~13:00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55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감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참여 능력 및 정서함양, 감수성 및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토요 여가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수강생 모집

오페라 연출가와 오페라 해설가가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고품격 오페라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년 5월 17일 ~ 7월 19일

매주 화요일 오후 2:00(총 10회)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피가로의 결혼 / ‘ 마술피리 / ‘ 세빌리아의 이발사 ’
‘ 사랑의 묘약 / ‘ 라 트라비아타 / ‘ 리골렛토 / ‘ 탄호이저 ’
‘ 아이다 / ‘ 카르멘 / ‘ 라보엠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



오페라 해설가 이용숙

- ▶ 강 사: 이의주, 이용숙
- ▶ 신청기간: 2016. 5. 2(월) ~ 5. 15(금)
- ▶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 모집인원: 50명
- ▶ 수 강 료: 10회권 50,000원 (정기회원 10% 할인)
- ▶ 문 의: 부산문화회관 (051)607-3104, 607-315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푸르른 날의 오페라 / 발레 / 뮤지컬

Nikolai Rimsky-Korsakov

Gioachino Rossini

Giuseppe Verdi

Wolfgang Amadeus Mozart

Georges Bizet

Leo Delibes

Pyotr Il'yich Tchaikovsky

Andrew Lloyd Webber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시영민




지휘 백진현

2016. 5. 31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균일 2,000원

주 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할인이벤트 3+1 가족이벤트 (티켓 3매 구매 시 1매 무료)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 의 607-3101 (홍보팀) 607-3148 (공연운영팀)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지휘 전상철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가요합창음악회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오프닝(김광석 편)
나의 노래

추억 1(김광석 편)
거리에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른 즈음에
불행아

추억 2(유재하 편)
그대 내품에
가리워진 길

추억 3(김현식 편)
사랑했어요
곡목길

추억 4(김광석 편)
이등병 편지
사랑했지만

추억 5(유재하, 김현식 편)
사랑하기 때문에
내사랑 내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추억 만들기

추억 6(김현식, 김광석 편)
지난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일어나



바이올린 조현미 드럼 김진훈 기타 김정태 기타 홍광현 바리톤 강종철 테너 김태우 아나운서 곽현경 피아노 이승윤 피아노 이경미

2016. 5. 21(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이건륜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

Universal Busan



2016.5.19(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출연단체 |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

입장료 | 균일 2,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607-3108(홍보팀), 3146(공연운영팀)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방향 100m "7번가 피자" → 앞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이야기

2016. 5.18(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 이정필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교사오카리나합주단



김민주(바이올린)



박동희(국악가요)



이경희(평과리)



최정욱(장구)



권두술(북)



이현서(징)

프로그램

- 기장청소년 리코더 합주단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 프론티어 / 작곡: 양병언
 - 캐논변주곡 / 편곡: 백규진
- 산유화 어린이민요합창단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 처이총각아리랑 / 편곡: 백규진
 - 장사치노래 / 편곡: 백규진
-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 부산 아리랑 / 편곡: 김만석
 - 동래 아리랑 / 편곡: 김만석
 - 다대포 아리랑 / 작곡: 윤소희
- 부산교사오카리나 합주단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 Erestu / 작곡: J.C. Calderon / 편곡: 백규진
 - 딱따구리 폴카 / 편곡: 백규진
- 바이올린 협주곡 [차르다시 (Czardas)]
 - 작곡: 비토리아 몬테 / 편곡: 백규진 / 바이올린: 김민주
- 국악가요 [배떡워라]
 - 작곡: 박범훈 / 국악가요: 박동희
-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합주곡 [신모듬]
 - 작곡: 박범훈
 - 팽과리: 이경희, 장구: 최정욱, 북: 권두술, 징: 이현서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공연문의: 607-3105(홍보팀), 607-3143(공연운영팀)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A석 10,000원,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예술단 특별연주회

행복한 2016 5월

문화나눔 콘서트

부산시립합창단

지휘 **전상철**(수석지휘자)

5. 12(목) 19: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5. 25(수) 19: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장윤성**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박신해**

5. 26(목) 19: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5. 27(금) 20: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smile!
Gyeongseong

금정문화회관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Yeongdo Culture & Arts Center

 동래문화회관
Dongnae Community Center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61-3),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8)
동래문화회관(550-6611),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

제13회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부산국제연극제

근대작가전

2016. 5. 6. FRI ~ 5. 15. SUN

장 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광안리아외무대,
나다소극장, 용천지랄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행복한 음악캠프

참가자
모집

BNK금융그룹이 한국을 빛낼 젊은 예술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국내외 유명 교수진과 함께 진행되는 제4회 BNK행복한 음악캠프를 **전액무료**로 개최합니다.
음악전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모집요강

- 모집 인원** 100여명 (현악, 관악, 타악, 하프)
- 지원 자격** 음악전공자로서 만16세(2000년생)이상 29세(1987년생)이하 이면 누구나 가능
- 참가 비용** **전액 무료**
- 참가 접수**
- 기간 : 2016. 5. 16(월) ~ 5. 31(화)
 - 접수 방법 : 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 (www.happybnk.co.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bnkmco@naver.com) 접수
 - 참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 서류 (선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발시 무대**)
 - (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첨부서류는 지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캠프안내

- 캠프 기간** 2016. 7. 25(월) ~ 7. 30(토) (5박 6일 합숙)
- 캠프 장소**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 교과 내용**
- 유명 교수진의 전공별 앙상을 지도
 - 오케스트라 발레곡 지도, 전체 오케스트라 합주 지도
 - 지도교수 특별 및 합동 연주
- 캠프 특전**
- 참가자 전원 수료연주회 참가
- 일시 : 2016. 7. 30(토) 오후 4시
 - 입장료 무료
 - 장소 :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 소재)
 - 입장권 신청 :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 (www.dureaum.org)

- 오디션**
- 오디션 곡목 : 자유곡 1곡 (빠른 악장)
 - 오디션 방법 : 신청자 전원 3분이상 연주 동영상 파일로 오디션 진행
 - 접수 기간 : 2016. 6. 1(수) ~ 6. 8(수)
 - 접수 방법 : 이메일 (bnkmco@naver.com) 접수
 - 결과 발표 : 2016. 6. 24(금)
- 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발표
- * 악장 지원자는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레자데' 솔로 전부분 연주 동영상 추가 제출 (악보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BNK금융그룹 (T. 051-661-4831)
* 세부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주곡**
- 바르톡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작품 113, 제1악장
B. Bartok Divertimento for String Orchestra Sz.113 I, Allegro non troppo
 -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작품 313, 제1악장
W. A. Mozart Concerto for Flute and Orchestra Nr.1 in G Major, KV 313, I, Allegro maestoso
 - 알프레드 리드 아르메니아던스
Alfred Reed Armenian Dances, Part I
 - 림스키-코르사코프 교향적 모음곡 '세헤레자데' 작품 35
N. Rimsky-Korsakov 'Scheherzade' Symphonic Suite Op.35

교수진

 <p>예술감독 오승근 서울대학교 및 내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 부산실용음악고등학교, 부산필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p>	 <p>비올라 신중호 미국 신시네티 음악대학 Artist Diploma 뉴욕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음악 대학 석사 현재 [지향]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이사장</p>	 <p>플루트 박지은 올리어드 예비학교, 명화원 음악학사, 예원 대학교(서울) 졸업 이화 대학교 예스 21원 부속합창단 부속, 부산시립합창단 부속,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속,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속</p>	 <p>오토 존지 다케무라 (Takemura Junji) 일본 후쿠오카 대학 졸업 도쿄시립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수석, 미치타대학 교수 역임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p>
 <p>관악지도교수 이정생 서울대학교, 미국 연호인 음악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예술감독</p>	 <p>헬로 송희승 서울대학교, 바인코린올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학무용연구소 수석 및 정부장학생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p>	 <p>오보에 이은희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방송예고 외래교수</p>	 <p>드미트리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그레신 대학,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모스크바시립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p>
 <p>바이올린 김재현 경희대학교, 바인코린올대, 첼초브로고 모차르티움 졸업 경희대 솔라 학장 역임 현재 경희대 평화의전당 관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p>	 <p>엘로 이예성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환주시립, 울산시립 단원 역임, UG'행보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실용음악고등학교 수석</p>	 <p>클라리넷 김한권 서울대학교, 연원국립음악대 졸업 KCO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제천시립합창단,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p>	 <p>트롬본 김우석 미국 연호인 음악 대학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시경대학교 교수</p>
 <p>바이올린 윤수영 캘리포니아 주립음악대 및 동대학원 졸업 UCJ Joshua Fidelity Class 아티스트 디플로마 취득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p>	 <p>베이스 김철환 서울대학교, 바인코린올대 수석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대 외래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수석</p>	 <p>클라리넷 이재민 서울대학교, 연원국립음악대 졸업 KCO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제천시립합창단,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p>	 <p>튜바 허재영 숙일 전문음악대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수석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p>
 <p>바이올린 박재진 서울대학교, 바인코린올대 졸업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비교무으로 앙상블 리더</p>	 <p>베이스 박재진 서울대학교, 바인코린올대 수석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대 외래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수석</p>	 <p>클라리넷 이재민 서울대학교, 연원국립음악대 졸업 KCO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제천시립합창단,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p>	 <p>타악기 최경환 미국 연호인 음악 대학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p>
 <p>바이올린 양영아 미국 연호인 음악 대학원, 예원대학교 대학원(박사)졸업 2013 부산필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KNN방송교향악단 악장</p>	 <p>플루트 최정은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졸업 하노이, 걸스루에 국립음악대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현재 독일브레머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p>	 <p>바순 최정선 서울대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신화예고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금호문화재단 소사이어티 단원</p>	 <p>하프 박지은 미국 클리프턴 음악대학, 신시, 박사졸업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p>
 <p>비올라 최승룡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 차우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이리지치메모리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p>	 <p>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이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롬드랑음악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p>	 <p>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이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롬드랑음악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p>	 <p>부지휘자 다니엘 S. 김 미국 서울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졸업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실용음악고등학교 부지휘자</p>

국립발레단

Ballet with Commentary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Don Quixote

돈키호테



예술감독 강수진
안무 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재안무)
음악 루드비히 민쿠스

2016.6.6.(월)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칭)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칭)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에너지(태칭)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칭)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I)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